# NATIONAL SOCIALISM
## SELECTED WRITINGS

# 국가 사회주의

## 선택된 글들

국가사회주의 네트워크 작업

출판

2020

# 목차

국가사회주의 - 철학적 평가·····························..·············.2 백인 권력 - 제15장 국가 사회주의·································..····.8 In Hoc Signo Vinces···································································26 나의 군단병들을 위하여 – 제8장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44 정치적 군인 – 제2부와 제3부···...............................·······.···..75

국가 사회주의 - 생물학적 세계관...............................·············..89 국가 사회주의 - 좌익 운동······.................................114

# 국가 사회주의

## 철학적 평가

콜린 조던

볼셰비키-민주 연합이 동원한 엄청난 병력과 물자에 맞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결과 국가사회주의 독일이 물리적으로 패배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재평가의 등장은 당시의 특징인 국가사회주의의 부활을 반영합니다.

수십 년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비방 캠페인을 겪은 후에도 이 신조가 지금처럼 살아남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그 신조가 여전히 유효하고 매력적이며 미래를 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불길과 비방의 폭풍 속에서도 국가사회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비방이 전면적으로 자행될 때에도, 국가사회주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고차원적 생존 의지, 건강과 힘에 대한 본능,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동의어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 본능, 그리고 열망이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국가사회주의 신조는 불멸의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적 실행의 모든 세부 사항과 시대적, 장소적 특수성을 넘어서, 제대로 이해된 국가 사회주의는 정신적 방향성 그 자체이며, 그 주된 충동은 인민의 조직된 공동체 내에서 자연스러운 경쟁과 선택의 조건 하에 협력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는 플라톤의 그리스와 그의 자연적 삶에 대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연적 삶은 원주민 사회 내에서 통치의 유리한 힘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의무적인 시민권에 대한 로마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선하고 고귀한 삶은 국가에 대한 냉정한 봉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유럽의 북유럽 부족들의 혈연적 감정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립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민족의 일원이며,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의무와 책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 구조 전체에 반항하여 삶의 오래되고 건강하고 유기적인 가치로 되돌아갑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과도한 개인주의와 인간을 무국적자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교환 가능한 단위, 더 작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항상 더 큰 피해를 용인하는 병적인 "인도주의"를 수용하는 타락한 기독교에서의 영적 정당화, 그리고 인위적으로 유도되고 수적으로 결정된 대중의 소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기성 주장.

역사는 사회적 쇠퇴와 갱신의 서사시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근대의 엄청난 퇴보를 20세기에 새롭게 되살리기 위한 처방입니다.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의 발전 세력에 의해 낡은 중세적 안정 질서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사상과 실천은 붕괴되고, 타락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번성했고, 19세기와 20세기의 민주주의 하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가 적절한 시기에 지구상의 충분한 지역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20세기 말에는 공산주의의 세계적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는 일시적인 정치 계획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부활의 경향, 즉 우리 시대의 르네상스 운동이며, 규모와 정신에서 혁명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현 질서, 그 해로운 관행, 그리고 거짓 가치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완전히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전 세계적이며 삶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 보편적으로 유효하고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이며, 그 발현과 전통이 아리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리아인에게서 발견되는 탁월한 자질을 옹호하고 그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것은 삶의 한 측면이 아니라, 한 측면에서 바라본 삶 전체라는 점에서 삶 전체에 적용됩니다. 사실상 모든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정치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영역에서도 모든 질병, 추함, 타락의 징후에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사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구성합니다. 어떤 사람도 단순히 지적인 지지를 표하기 위해 자신을 국가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성향을 타고났으며, 그의 마음은 건강한 삶의 방식에 대한 분별력과 성취를 미적으로 갈망합니다.

단지 생각하고 느낄 뿐, 그가 정말로 완전한 국가사회주의자라면, 그는 국가사회주의자처럼 행동할 뿐이다.

국가사회주의는 그 범위와 사상 전체에 걸쳐 철학이자 신앙으로 귀결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국민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것으로 평가하며, 민주주의 정신의 감상적인 나약함 대신, 수단이 목적과 모순되지 않는 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통에서 자궁 속에서 싹이 트고 무덤이 변형되어 물리적으로 우주로 재분배되는 사이에, 인간의 연속성과 발전 속에서 개인적 성취로서 삶에 우주적 차원의 의미와 목적을 설정합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국가 사회주의의 기본 기준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것의 근원인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민족은 인간의 본질적인 환경이자 실제로 인간의 성격의 확장입니다.

민족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인종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민족적 확장입니다. 인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족적인 단위나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민족에 속합니다. 인간의 삶은 일부로서 전체의 삶,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삶과 얽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민족은 구성원들이 의무를 다하는 한 지속적이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민족과 동일시함으로써 조상과 후손의 다양성을 통해 자신을 연장하고, 그로써 불멸을 얻습니다.

민속은 가족, 씨족, 부족 또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종에 이르기까지 더 작고 더 큰 형태로 존재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민속 개념은 당대 국가의 민족과 지나치게 동일시되었습니다. 부족과 소왕국에서 현대 민족 국가로 정당하게 확장되었던 친족과 공동체 의식은 그러나 이 수준에서 지나치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족 국가 내의 더 낮고 작지만 똑같이 중요한 공동체들은 분열되고 활력을 잃었으며, 민족 국가 수준에서 전 민족으로 확장되는 민속 의식은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속 의식이 건전한 힘을 발휘하려면 뿌리부터 지역과 지방을 거쳐 흘러야 합니다.

## 사회는 인종의 한계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의 완전한 안전과 번영은 전체의 안전과 번영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미래에 국가사회주의는 현대 국가와 전통적인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 친족 관계와 공동체 의식의 본질적인 확장을 구현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가 민족 구조의 중간 단위가 되고,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전체 인종의 민족주의에 완전히 종속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사회가 부활해야 하고, 지방 하위 국가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분리를 통해 민족적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의 민족을 기본 가치로 여기는 믿음과 그 전체적인 관점은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피를 흘려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이고 필연적으로 인종 문제에 따른 시민권의 정의가 생겨납니다. 즉, 민족의 구성원인 사람만이 국가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구성원인 사람만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돌프 히틀러의 NSDAP의 25개 조항 중 4번째 조항을 의역한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인종적 특성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민족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믿음을 낳습니다. 진정한 진보의 길은 더 나은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 국가사회주의의 혁명적 주장입니다.

모든 시민은 같은 인종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적, 계급적 차이와 개인적 차이를 초월하여 혈연으로 연결된 초월적인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계급 투쟁을 대체하는 국가적 단결, 즉 응집력과 공동체 생활은 국가 사회주의의 중요한 부차적 원칙 중 하나입니다. 모든 직업과 활동, 모든 유형의 사람, 모든 활동 분야는 공동체의 공동체 생활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이라는 사회적 감정은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진지하고 심오한 관심을 통해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극되어야 합니다. 친족 의식과 국민 전체의 공동선에 대한 관심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을 요구합니다.

각 시민은 자신의 공로에 따라 승진해야 하며, 모든 시민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가장 단순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의 사회주의적 요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산 및 분배 수단의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는 개미집의 경제적 과잉 통치이며, 자본주의 체제의 약탈적 개인주의, 즉 정글의 경제적 하층 통치 또는 무정부 상태만큼이나 비난받을 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민속 사회주의, 즉 공평한 조건 하에서 사기업의 생산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의와 사회적 악은 경제에 대한 공적 통제라는 악랄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를 낳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안은 국가 사회주의에 있습니다.

민족의 수호, 국가의 통합,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수반하는 민족적 이상은 국가사회주의의 지도 원칙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엘리트를 낳습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자연 질서 개념은 인간이 민족 속에서 태어나 민족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유전적 능력의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는 상위자가 하위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타고난 지도자들은 선발되어 최고 지도자 아래 위계적 엘리트로 자리매김하고,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지시권을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도와 중재, 격려와 보호를 제공하는 위대하고 유익한 힘으로 여깁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모두가 국민을 위해, 국민이 모두를 위해"라는 격언을 고수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이 격언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모든 분야에서, 규제합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정부의 의무를 민주주의적 폭도의 일시적인 변덕이 아닌, 공동체의 더 높은 이익을 위한 민중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목적의 연속성으로 보고, 현재의 일반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필요성도 포괄한다고 봅니다.

# 백인의 힘

## 제15장
## 국가 사회주의

조지 링컨 록웰

지금까지 이 책은 주로 비판적이었습니다.
이제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계획을 제시할 때입니다.

저는 독자들이 서양 문명이 로마 문명의 종말, 즉 망각에서 불과 몇 년 안에 끝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1년간의 연구와 수백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서양 문명의 유대인 숙적들의 손에 이미 넘어간 수백만 명의 운명, 즉 노예화나, 더 가능성 있게는 살인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적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백색 혁명으로 공격할 의지와 지혜를 찾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두 수염을 기르고, 거리로 뛰쳐나가 소리치고, 팔을 휘두르고, 폭탄을 던지고, 그 밖에도 전형적인 "혁명가" 행세를 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히틀러는 비교적 평화로운 혁명을 고무하고 조직하고 성공시켰는데, 이 혁명은 미국 독립전쟁보다 훨씬 적은 인명을 앗아갔고, 유대인 볼셰비키가 이룩한 어떤 혁명과도 비교해도 미미한 수의 인명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약속했듯이 그의 혁명은 100% "합법적"이었습니다. 즉, 독일 국민 대다수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었으며, 독일 최고 행정관 힌덴부르크와 독일 "의회"인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많았고, 1931년에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혁명, 즉 무력으로만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히틀러는 나처럼 지도자는 문명의 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국민의 의지를 지지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혁명"을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혁명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폭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범에게 공격을 받고 죽음과 타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스스로 죽는다면 폭력만이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은 실제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 적들은 정책적으로 역사상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무자비하게 살인과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를 막을 만큼 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적을 죽이고 그의 힘을 파괴할 만큼 무자비합니다.

1923년, 적군이 바이에른에서 권력을 장악하려 하자 국민당, 보수당, 그리고 루덴도르프 장군은 히틀러에게 뮌헨에서 "푸치(Putsch)", 즉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약골이
지도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배신했습니다. "푸치"는 진압되었고 히틀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의 본질은 결코 유혈 사태와 격변만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혁명에서 폭력과 살인은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전반적인 영적 전망 - 내면의 이상에 맞춰 물리적 사물의 새로운 배열을 확립하려는 최고의 인간 의지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는 순수한 폭정이지만, 위선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확립한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비롭고 지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혁명은 폭군의 불법적인 권력을 파괴하고 우리 인민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확고한 권위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회복한다는 이상에 확고히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에게는 자유롭게 부여됩니다.

믿으실지 말지,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위해 한 일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 혁명은 단순히 적에 대한 증오와 파괴를 원동력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우리 백인종 사회의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려는 절대적인 결의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 정의로운 사회 질서란 무엇일까?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집단 생활의 원칙

본능이 훼손되지 않은 사회. 예를 들어, 동물들은 질서 있고 성공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이는 자연이 모든 사회적 동물에게 성공적인 집단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본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늑대, 개미, 벌, 원숭이는 매우
조직적이고 철저히 건강하며 질서 있는 사회.

초기 인류는 건강한 사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인간은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인공적인 것과 사치에 둘러싸여 타락하고 오만한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 자만심 말입니다.

생각 없고 문명화되지 않은 동물 세계의 더 단순하고 원시적인 삶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창조주가 그들에게 부여한 본능의 작용을 관찰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가 버린 것의 경이로움을 엿볼 수 있을까?

자연은 마치 훌륭한 농부처럼, 자신이 실험하고 더 나은 품종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조주는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현명한 농부이시므로, 각 집단의 순수함, 신성함, 즉 생물학적 온전함을 절대적으로 고집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소를 키우듯이 자연은 더 나은 품종을 육성하고, 더 나쁜 품종을 제거함으로써만 품종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가장 많은 것을 통해 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본능: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침입자, 즉 "외부인"에 대한 증오.

이 두 가지 본능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선"이 아니고 증오는 "악"입니다. 이는 유대인, 진보주의자, 히피족, 퀴어, 멍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헛소문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울 때 참으로 놀랍도록 강력하고 선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사랑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치명적인 증오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위협합니다. 사랑은 공허합니다.
단어, 히피족, 퀴어, 겁쟁이들을 위한 유행어.

저는 이 특정한 사회생활의 법칙에 대해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생물학적 무결성은 아리아 사회에 적용될 때 국가 사회주의의 본질이자 전부이며,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건강한 인간 사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 주제만을 다룰 만한 책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동물이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생물학적 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인종 집단에 대한 절대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충성심은

총

강렬한 사랑과, 침입하여 자신의 집단 여성과 유전자를 섞으려는 외부인에 대한 절대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증오입니다.

이 법칙은 일상에서 자기 종족에 대한 사랑과 공격적인 침입자에 대한 증오로 나타납니다(대부분의 건강한 백인이 "흑인", 유대인, 그리고 다른 "외계인"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을 갖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은 영토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드테일"이라 불리는 작은 열대어 수컷 10~20마리는 수조에 들어가자마자 수조의 특정 구역을 지키고 다른 수컷이 침입하면 공격합니다.

암컷을 수조에 넣으면 예상대로 수컷들은 암컷을 두고 다툰다. 하지만 과학계에 놀라운 점은 이 작은 물고기들의 삶에서 성(性)이 가장 강력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조의 물을 식히기 시작하면 물이 너무 차가워져서 암컷을 넣어도 수컷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지면

작은 물고기들을 거의 죽일 정도로 차가워서 암컷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어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그들은 자신의 영역, 즉 사유지를 지키기 위해 맹렬하게 나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유재산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영토법은 인간 사회에서 "민족주의"와 사유재산으로 나타납니다.

동물계 전체에서 리더는 투표로 선택되지 않고 항상 자연이 그룹을 최고의 리더가 이끌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으로 확립한 자연선택에 의해 선택됩니다.

– 전투. 나는 이것을 리더십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동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강인함, 지혜, 그리고 영리함이라는 자연적인 생물학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각 구성원은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고 집단은 비교적 평화롭고 질서 있게 됩니다. 어린 수컷들이 성숙해져서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내리기 위해 싸워야 할 때에야 비로소 심각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 수컷이 누구를 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때릴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자리를 잡고 자신이 찾은 그 자리에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집단 생활의 기본 원칙 또는 법칙 두 가지가 확립되었습니다. 즉, 최고의 리더십과 집단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위계 또는 리더십 척도인 지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세계에 대한 연구는 암컷이 수컷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여 새끼를 낳고 양육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집단 생활에는 다섯 가지 기본 법칙이 있는데, 저는 이를 "부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 생물학적 무결성의 법칙(사랑
(안에서는 싫어하지만, 밖에서는 싫어함);

(2) 영토법(사유재산법)

(3) 리더십의 법칙(최고의 리더십에 의해)

(4) 지위의 법칙(또는 집단 내 각 개인의 자연스러운 위치) 및

(5) 여성의 모성.

이러한 자연적 원리가 사회 동물의 세계 전반에 걸쳐 작용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는 비교적 평화와 질서가 유지됩니다.

자연의 철칙을 따르려는 신이 부여한 본능이 실패하는 것은 집단이 어떻게든 비자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평가할 때, 겉보기에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청소년 비행 패턴. 우리에게는 아들들이 있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부유층의 딸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들을 때리고, 무분별하게 물건을 부수고, 독극물을 복용하고, 거만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의 자녀들은 거의 범죄자를 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최근까지 중국의 젊은이들은 결코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들의 비행율은 여전히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매우 가난하더라도 긴밀하게 결속된 집단의 젊은이들은 현대의 청소년 비행의 광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유한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둑, 기물 파손범이 되고, 극도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걸까요? 반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건설적인데 말입니다.

그 답은 자연스러운 집단 생활의 법칙(부족의 법칙)을 어느 정도 유지해 온 집단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들이 충성스럽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룹, 즉 "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그룹 생활의 5가지 기본 법칙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비어 있는.

유대인들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면서 의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혼에서 신성한 '부족의 법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 법칙만이 인류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롭고 생산적인 행복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속한 어떤 종류의 "부족" 외부에서
매우 충성스럽고 그를 지지합니다.
영적으로.

유대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보편주의", "단일 세계주의"라는 사상, 즉 인종도, 국가도, 원자화된 개인들의 무리를 인류의 최고 이념으로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보수주의자들조차 이 부자연스럽고, 분열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유대인 사회의 질병에 입에 발린 말을 퍼뜨리도록 속아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물학적 온전함(내면은 사랑하고 외면은 증오하는)의 법칙이 "인종차별", 즉 모든 시대의 "궁극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황인종, 흑인, 특히 유대인을 우리 민족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사악하고 변태적이며 파멸할 운명이라고, 즉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불쌍한 백인 얼간이들이 유대인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영토법(사유재산)은 비자연적인 탐욕이며, 품위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며 자신의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를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여러 다른 명칭으로 부르지만, 이 모든 명칭은 생명체가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려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동기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수백만 명이 이 유대인 거짓말쟁이들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법칙(최고의 통치)이 "독재"이고 우리는 "민주주의"(폭도의 통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백인 아리아인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사이렌의 노래를 믿다가, 이제는 인간 쓰레기 무리가 우리 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신분법(Status Law)에 대해 말합니다.
각 개인의 타고난 능력 질서를 (적절한 위치에) 확립하는 것은 "계급 착취"이며, 사회의 타고난 지도자, 즉 성공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박살나고 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백인 아리아인들로 가득 찬 온 나라가 계급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정복하려는 이 사악한 유대인들의 수법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늘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여성을 육아에 전문화하는 것은 우리 여성을 잔혹하게 노예화하는 것이며, 여성은 판사, 기관차 엔지니어, 군 장교, 기업 임원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모든 건강한 문명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제도인 모성과 더불어 가정과 가족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세계 전체가 이 "민주주의적" 유대인의 사기에 속아 넘어갔고, 이는 여성을 유대인이라는 질병의 가장 불쌍한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현대" 여성들이 더 많은 "권리"를 확성기로 외치면서도 절망적으로 길을 잃고 좌절하며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지옥을 선동하는, 호전적인 정치 조직에서 행진하는 것.
그 사이 수백만 가족이 따뜻하고 훌륭한 어머니를 잃었고, 가정은 1세기 전의 기적과 같은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집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감옥과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이 갱단에 모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랫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이것이 "나쁜" 남자아이들의 부자연스러운 변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부르주아 "고치"에서 자라면서 삶의 잔혹한 현실을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사회적 생활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즉 인간은 "부족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면,
"갱"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건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아이들이 사는 건강에 해로운 도시 환경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부자연스러운 조건의 결과로 이러한 본능이 외부적으로 사악하고 반사회적으로 표현되더라도 말입니다.

갱단의 첫 번째 특징은 '배타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들은 광적으로 "뭉쳐 다닌다". 한 명이라도 공격하면 모두 공격하고, 갱단의 여자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죽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충성합니다. 그리고 외부인과 공격자는 더욱 격렬하게 증오합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자연의 신성한 법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직성과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갱단이 하는 다음 행동은 "영역", 즉 영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는 자, 즉 갱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명백히 영토의 법칙을 예시하는가?
갱단은 결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이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갱단의 기준으로) 가장 강하고 최고의 사람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법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갱단의 각 구성원이 갱단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누가 자신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는 망가질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를 박살 낼 겁니다. 이게 바로 지위의 법칙입니다. 자연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갱단의 여성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것을 제공합니까?

지도자에게 명령을? 아니! 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권리"를 요구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동물 세계의 암컷처럼 행동하며 수컷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컷으로서의 역할, 강력한 수컷에게 "소속"되고 자랑스럽게 돕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암컷의 역할입니다.

(유대인 프로이트 정신과 의사 사기꾼들이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집단의 법률, 부족의 법률로 돌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 역시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투쟁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본능적으로 흑인에 대한 충성심을 형성하고, "흑인의 힘"을 외치며 서로를 "영혼의 형제"라고 부른다.

유대인 이민 초기, 뉴욕 시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유럽에서 온 이 비참한 유대인 쓰레기 떼조차도 "부족의 법"을 모두 준수하는 광신적인 집단 충성심으로 뭉쳐 서로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의 집단 충성심은 세계 역사상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그 충성심 덕분에 그들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용감하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기본 법칙을 준수하고 집단 충성심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썩어빠진 "단일 세계", "우리는 모두 형제다"라는 쓰레기 같은 말에 속아 사회를 붕괴시키는 반면, 유대인들은 역사상 전례 없는 집단 충성심으로 사회를 유지하며, 그렇게 승리를 거듭해 나갑니다.

50년 전 아돌프 히틀러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세계관, 즉 국가 사회주의의 세계관으로 직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까지 비유대인들은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첫 번째 통찰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 집단 생활의 과학. 우리가 수 세기 동안 본능적으로 해왔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아돌프 히틀러는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의 본질은 인종차별주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는 인간이 우수성 면에서 다르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체와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백인은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혈통으로 보이는 반면 흑인은 가장 낮은 혈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생물학적 온전함"이라고 명명한 집단 생활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유대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의 끔찍한 거짓말과는 달리, 아돌프 히틀러는 사유 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했습니다. 크루프와 다른 크고 작은 재산 소유자들과 사업가들은 히틀러 치하에서 단 한 푼도 잃지 않았고, 독일 제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그의 당내 광적인 "좌파"들은 독일 제후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히틀러는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민족주의자였고, 영토와 사유재산을 신봉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히틀러는 그의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선동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 점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건전한 모든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처럼, 그들은 그를 사랑으로, 기꺼이 따랐습니다.

히틀러의 국민들 사이에는 평화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훌륭한 도랑 파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놀라운 기계를 발명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최선을 다해 채우는 한 존중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영원히 부추겨져 (…)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더라도 회장, 이사회 의장, 임원 등 특정 직책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하고, 지옥을 만들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목표로 삼는 것은 질서 있고 행복한 사회를 파괴하는 일이고, 이를 거부하는 개인을 절망적으로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히틀러의 국가는 신분(Status)의 법칙을 인정했습니다. 농부, 전사, 노동자, 공장 노동자 등 어떤 신분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한 일에 대해 존경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히틀러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고대의 출생권을 가지고 아내로서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즉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대한 거짓말은 이제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서 의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시대를 살아낸 정직하고 용감한 독일인을 만나본다면 (그리고 그는 오늘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만연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독일 국민들이 훌륭한 지도력과 타고난

건강한 상태는 히틀러 시대와 같습니다.

그 지식과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해 유대인의 기생적 존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유대인 악마들은 우리 중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하여 가도록 했습니다.

백인 아리아 르네상스의 기적을 학살하고 파괴하라.

하지만 자연법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부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2 더하기 2는 4다"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일곱" - 하지만 둘에 둘을 더해도 여전히 넷이고, 언젠가는 테러리스트와 거짓말쟁이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재확인할 용기와 지혜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젊은 "갱단"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부족의 법칙"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로서 세상에 준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대의 자연적 "부족법"의 현대적 형태일 뿐이며, 위대한 정령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준 행복하고 건강한 집단 생활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자연 질서(어떤 면에서는 "국가사회주의"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히틀러는 특정한 정치 상황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운동 이름을 고안해야 했고,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름과 용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독일에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독일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조종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전투를 치르기보다는 사실상 이 수백만 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되지 맙시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우리는 '국가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 사회를 뜻합니다. 유대인을 위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독일을 위한 '사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공산주의에 현혹되었던 수많은 선량한 남녀들이 히틀러의 방법을 통해 다시 자기 민족으로, 그리고 건강한 집단 생활의 자연 질서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질서의 기본 요소를 넘어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사회주의는 단순한 규칙이나 원칙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한 것을 구현합니다.
철학으로서의 국가사회주의는 모든 생명체, 실제로는 모든 창조물에서 발견되는 더 높은 수준의 존재, 완벽함, 신을 향한 영원한 충동을 구현합니다.

국가 사회주의의 이 "귀족적" 사상 -
자연 전체에서 점점 더 높고, 점점 더 복잡하고, 점점 더 완벽한 존재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이상의 형이상학적, 초자연적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정의와 자연 질서라는 개념은 국가 사회주의의 기관이자 신경이지만, 그 성격, 즉 "종교적" 측면은 국가 사회주의를 모든 엄격한 정치 철학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알려지지 않은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에 대한 종교적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그 의식이나 기도문, 또는 그 어떤 신조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추구하는 영적 완전함이라는 이상을 향한 영적인 노력입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이 땅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종류이고, 기독교는 이 땅이 아닌 미래와 그 이후의 삶을 향해 노력합니다.

자연 질서, 즉 국가 사회주의를 위해 건설하고 싸우는 우리 "군대"의 평범한 "군인"에게는 우리 철학의 숭고한 이상에 의해 확립된 법률과 교리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아마도 우리 철학의 가장 높은 형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부 사항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의 가장 높은 이상에 "취한" 우리 국가사회주의 엘리트 지도자들은 이러한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인종 교리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의 이상주의적인 "신을 향한 노력"의 일부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대한 인종과 완전히 동일시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때, 특히 우리 인류가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는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 자기희생을 할 때, 우리는 우월 인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 명문화되고 제시된 국가사회주의의 메커니즘과 규칙은 우리 대부분, 즉 민족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된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에게는 충분하지만, 국가사회주의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적 이상, 즉 신을 향한 분투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인위성과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의 영원한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기 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유일한 운동입니다. 인종에 대한 우리의 철저한 믿음, 사회, 경제, 그리고 모든 인간 활동 분야에서 자연법칙을 고집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자연의 철칙을 의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적용한 것이지, 오만하고 땅콩 같은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강요하는 자만심에 가득 찬 근시안적인 왜곡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역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혐오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으며, 명예로운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약간의 지식"이 "위험한 것"이라는 진부한 말에 희생된 "지식인"들. 콩고 흑인에게 시를 낭송하거나 심지어 변호사나 의사처럼 행동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자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쭐대며, 어떤 호텐토트족이든 스스로 서부 백인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자연이 이미 흑인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고, 어떤 인간도 "돼지 귀에서 명주 주머니"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사랑의 정수입니다.
자연에 대한 존중, 사랑, 의식, 과학

영원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을 인간 존재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사회주의는 인간이 정글의 생각 없는 동물들보다 더 높은 문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연법의 적용을 예를 들어 동물 세계의 노골적이고 이빨과 송곳니가 난무하는 경쟁에서 공정한 규칙 하의 규제되고 질서 있는 경쟁으로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상대는 경쟁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합니다.
전혀 부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국가사회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삶의 자연법칙을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연법을 피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 건강("국가사회주의" 또는 자연 질서)과 사회적 질병(유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는 무(無)의 "무인도"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죽지도, 진정으로 죽지도 않은 곳입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는 순수하고 순수한 무(無)의 상태입니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인생관도, 이해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문구로 포장된 화려한 술책일 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유대인과 그들의 저주받고 부자연스러운 공산주의가 탄생할 길을 예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 사기극을 중단시키고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민족에게 자연 질서, 즉 부족의 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백인종의 자연적, 생물학적 우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서구 문명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십시오.

어떤 집단에서든 자연 질서의 응집력을 파괴하면 그 집단은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며 좌절되고 길을 잃고 공허하고 사악해지며 결국에는 연합된 다른 집단보다 더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의 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흑인들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그들은 서로 붙어 다닙니다. 하나만 맞으면 백만 마리의 흑인들이 당신을 향해 포효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더 이상 그들을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범죄.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가운데서 더욱 강력합니다.

이유가 있죠. 서로 달라붙거든요.

9장에서 살펴본 인종의 법률에 부족의 법률을 더하면 현대 사회의 새로운 법률인 집단 지배의 법률을 종합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동물이나 원시 인간 집단, 즉 가장 우수한 개인으로 구성되어 가장 우수한 유전자와 염색체를 지닌 집단이 모든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속의 모든 집단(우월하든 열등하든)은 부족의 법칙을 동등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요소는 생물학적 번식의 우수성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장치, 사치, 그리고 유대인의 "자유주의"는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백인 남성은 자연의 "부족의 법칙"을 느끼고 따르는 능력이 부족해져서 집단적 응집력을 잃었고 사회적 동물로서 "분리"되었으며 분열되고 원자화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고립된 개인과 수십만 개의 이기적인 "압력 집단", 계층 등으로 나뉩니다. 백인 남성이라는 거대한 "부족"이 거의 완전히 분열되면서 우리는 집단으로서 무력해졌습니다.

인간 사이의 집단 우위의 법칙은 부족의 자연법을 열광적으로 고수하는 집단이 그 법을 어기는 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규칙이며, 법을 따르는 "부족"이 아무리 열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인과 유대인들이 백인들이 건설하고 소유한 미국에서 백인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수"의 폭정을 겪는 이유입니다.
쓰레기와 인간으로 구성된 조직된 소수 집단은
쓰레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백인, 비유대인은 거대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거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가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는 우리 민족에게 부족의 법을 회복시켜, 백인이 자신이 건설하고 지배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우월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가 절망과 혼돈의 심연에 빠진 수백만 명의 분열되고 원자화된 사람들을 위해 독일에서 행한 일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가 "강인한 놈"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대규모의 흥미진진한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고, 독일인들이 타고난 "짐승"이기 때문이고, 거짓말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아첨하는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동맹들이 내세우는 다른 이유들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사회적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히틀러가 제가 쓴 모든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의 국민을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로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국민들에게 고립되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가르쳤고 그들에게 국가적 정체성, 즉 "부족"이라는 신성한 감각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제애(
유대인들이 팔아넘기는 인위적인 종류). (동족과의 "형제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활하고 거짓으로 "형제애"를 확대하여 "형제"를 은폐하고 줄루족, 피그미족, 중국인, 부시맨, 유대인과 "형제"가 되게 하려고 할 때, "형제애"는 인종적 재앙의 대명사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대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희생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고, 이는 모든 자연적 사회 집단을 하나로 묶고 축복합니다.

창조.

제가 여러 번 지적했듯이, 어떤 사람도 모든 동료들과 싸우는 외롭고 쓰라린 개인으로서는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생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생물학적 가족 구성원들의 따뜻함과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현대인은 그러한 집단적 따뜻함, 충성심,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이 붕괴되는 서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혼돈과 정신적 공허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 묘사된 참상은 미국이 부족의 법을 거의 완전히 어긴 데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모든 유대인과

히틀러가 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자연 질서인 "부족의 법률"을 회복하지 않는 한, 흑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혁명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감정에 있어서의 급진적인 영적 변화:
이기적인 원자주의와 탐욕스럽고 편협한 "개인주의"를 없애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불리든,

"보수주의" 또는 "민주주의", 그리고 서구 백인 남성들의 마음속에 우리 동족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주는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단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더 큰 인종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베푸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 In hoc signo vinces

조지 링컨 록웰

인간의 어떤 노력에서든 오래 지속되는 성공은 결코 맹목적인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의 달성은, 그것이 "X" 지점에서 "Y" 지점으로 걸어가는 행위든, 집을 짓는 행위든, 사업을 조직하는 행위든, 항상 다음 세 가지의 산물입니다.

1. 문제를 인식하는 지적 능력, 예상되는 반대,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 반대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2.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려는 의지와 결의.

3.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지로 결정한 계획이나 싸움을 실행하고 수행하기 위한 신체적 수단, 힘, 용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목적에 부족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고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X" 지점에서 "Y" 지점으로 걸어가려는 데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이해할 만큼 멍청한 사람, 우리 사이의 길은 뱀과 위험한 육식동물, 그리고 열병으로 가득한 정글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지도, 약, 그리고 다른 장비들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굳은 결의와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Y"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여정을 시도하는 다른 사람이 위험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비하며, 아무리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 우유부단하고 의지가 약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고 필요한 모든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Y"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분쇄하고 파괴하십시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성과, 최고의 영웅심으로라도 헤쳐 나갈 의지와 결의를 가진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약해서 육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정신과 의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약해서, 만날 더 강한 적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이며, 개인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문명이 생존을 위한 투쟁에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실패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야만 사회는 대개 멸망하는데, 이는 강한 의지나 체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신에 빠져 무지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문명 사회가 배워 온 폭력적인 자연 현상, 재앙, 질병의 물리적 힘에 압도됩니다.

극복하다.

반면에 문명은 지적 성취와 과학에도 불구하고, 의지의 쇠퇴, 즉 본래 사회를 창조했던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생존과 지배의 욕구가 약화됨으로써 가장 흔히 멸망합니다. 문명은 "인도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나약해집니다. 문명은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전투를 위해 유급 군대와 경찰에 의존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가졌던 명예와 자기희생, 영웅심에 대한 투쟁 정신은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편안함과 사치, 비겁함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서 자리를 내어줍니다.

문명이 쇠퇴의 이 단계에 이르면, 극히 드문 역사적 사건만이 사회의 최종적인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쇠퇴는 날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회에 아직 영적인 거인, 즉 고대 인류의 영웅적 정신을 신처럼 되살릴 수 있는 존재가 남아 있을 때에만, 그 거인은 문명을 충격에 빠뜨리고 자연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죽음과 잠의 역사적인 밤, 오직 "평화"와 죽음의 잠만을 갈망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다시 한 번 잠시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아리아 문명은 19세기에 슈펭글러, 체임벌린 등이 지적했듯이, 불확실한 상태로의 여정을 걷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아돌프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적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면,

지적이고 예민하며 예민한 사람이 혐오스럽고 자살적인 문명에 둘러싸여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교화되고, 식인화되고, 가슴이 큰 문명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정글로 돌진하는 영혼을 짓밟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의 역사 등장은 백인 서구 문명에 자기희생적이고 창조적인 활력의 불꽃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백인이 앞으로 천 년쯤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한히 소중한 불꽃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히틀러의 행적을 간파할 만큼 재치 있는 인류의 소수 엘리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비겁하며 근시안적이어서 너무 늦기 전에 역사의 교훈을 적용하여 히틀러가 우리에게 준 불꽃을 창조의 맹렬한 불꽃으로 다시 불태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우리의 용감한 조상들이 세운 문명.

지금까지 유대인의 쇠퇴와 파괴 세력이 아돌프 히틀러의 문명 영웅들에게 가한 무서운 처벌은 세상을 너무나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가 보여준 인류의 위험과 구원의 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삶과 자유와 안락함에 너무나 애착을 갖고 있어서 백인의 생존이라는 신성한 불꽃을 감히 줍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의 숨결로 부채질하지 못합니다. 그 불꽃은 곧 타오르지 않으면 영원히 꺼질 것입니다.

아리아인, 백인 인류는 어둠과 망각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 절벽에는 다른 잘난 체하고 거만한 문명들의 뼈가 흩어져 있습니다.

제국의 외적인 힘과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몰락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커지는 나약함과 "인도주의"라는 총체적인 위협을 깨닫거나 마주하지 못했고, 죽음과 망각으로 향하는 역사적 행진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게으르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럽고 비겁해서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에게 먹이가 되거나, 심판의 잔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독 당근.

천 년 후에 역사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백인이 자신의 압도적인 힘, 지식,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의 지도력이라는 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비교적 작은 무리의 역겹고 병적으로 불균형하며 육체적으로 약하고 비겁하고 거만하며 폭군적인 유대인들의 가장 믿을 수 없고 으스스한 노예 생활에서 자신을 구하려는 완고한 거부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미국' 문제도, '영국' 문제도, '프랑스' '독일' '유럽' '아프리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백인 남성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의 이름으로, Bartholomew Buckingham이 템스 강 근처에서 태어났는지, Hans Schmidt가 라인 강에서 태어났는지, Pierre Dubois가 라인 강에서 태어났는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느강, 스톡홀름의 페르 올라프슨, 더반의 에릭 에라스무스, 오하이오주 포덩크의 조 도크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존 스미스를 "더 이상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비교해보십시오.

바솔로뮤스, 한세스, 피에르, 퍼스, 에릭스, 조스, 존스?"

우리 행성에는 우리보다 4대 1 이상 많은 색깔의 생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 열등한 존재들이 우리와 "동등하다"고 하며, 우리의 돈을 투표로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명,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구식 관념에 따르면, 저, 링컨 록웰은 가장 하층민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며 충성해야 합니다.

정글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검은 댐이 그들을 미국 도랑이나 더러운 구덩이에 던져 세상에 내놓았다는 조건 하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은 "미국인"이고, 우리 모두가 "미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반동물, 나의 "동포 미국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수백만 명의 가장 뛰어난 생물학적 표본을 학살하여 죽어야 할까? 할리우드 유대인 갱단이 미국인은 독일인을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특정 지리적 영역인가요?
충성스럽고, 그것을 위해 내 동족을 죽이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나 자신? 이 지리적 덩어리에 대한 내 충성심은 여기서 끝나는가? 캐나다 국경?

하지만 어쩌면 제가 충성해야 할 것은 "미국주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국주의"를 위해 독일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미국주의"를 살펴보면, 그것은 주로 유대인의 문화, 정부, 종교, 오락, 심지어 성생활까지도 유대인의 지배에 기꺼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깊은 확신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유일한 충성심은 바로 내 민족과의 인종적, 따라서 문화적 형제애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든 말입니다! 그 충성심이 도전받고 내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상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제 유대인 무리의 적절한 준비와 선동에 따라 우리 백인 남성들이 "무역 경쟁자"이거나 "미국 민주주의" 또는 "대영 제국" 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들고 영원히 증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나는 백인이고, 다른 모든 백인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모두와 함께 서서 필요하다면 그들을 이끌고 지구의 유색인종이 백인을 학살하고 약탈하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협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교활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뱀이 들끓는 정글을 걷는 비유의 첫 번째 사람처럼 너무 많은 백인 "지도자"가 문제의 우주적 비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합니다.

조치.

백인 남성의 처참하고도 절박한 상황을 직시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생존을 위한 총력전에 필요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싸우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능한 지도자들은 포위된 백인 남성들이 작은 집단으로 모여

상상의 선 뒤에 지리적으로 모여서 바람에 다양한 색깔의 천 조각을 용감하게 흔드는 사람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색깔의 천 조각을 가진 백인들은 어찌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결코 이런 허황된 지리적 "팀"으로 심각하게 분열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볼셰비즘, 시오니즘, 그리고 잡종주의를 내세우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백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경계, 국기, 언어, 문화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전 세계 백인 엘리트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며 흑인 군대를 우리 모든 국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에 의한 이러한 국제적 전멸 위협에 직면하여, 이미 그 위험을 직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양키 제국주의", "대영 제국", "더러운 가톨릭교도", "부도덕한 무신론자", "공화당", "노동당원", "빌어먹을 양키", "독일 우선주의" 등등을 지겹도록 암울하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납치범과 살인범 무리에게 포위된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은 잠시 잊고 있던 치명적인 위험 앞에서 누가 구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다투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싸움은, 만약 싸움이 있다면, 백인 종족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백인은 조상들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리며 정복하고 문명화했던 지구를 다시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유대인이라는 깃발 아래 유색인종 대중은 문명을 야만적인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만자 깃발 아래, 전 세계의 백인 남성들은 문명을 구하기 위해 지구를 정복할 것입니다.

문명에 맞선 유대인의 전쟁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거대한 혁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수백만 명의 우리들을 시켜 "민주주의!", "Gott mit uns!", "노예를 해방하라!",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며 서로를 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금을 지원한 수소폭탄으로 두 백인 팀이 서로를 학살하는 최후의 대학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간의 살인과 자살 전쟁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악마적인 목적을 위해 수천 명의 형제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난번의 끔찍한 학살에서 한 것과 같습니다.

1940년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즉, 그들이 인류 지식의 가장 큰 걸 걸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에 대한 지식에 따라 결정되는 전략과 전술의 불가피한 결론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역시 상황의 치명적인 현실에 맞서 무자비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4천 년에 걸친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개방적인 세계 권력을 거의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세계 활동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비밀 권력을 손에 넣었으며, 대중의 의지를 세뇌하고 파괴하여 자신들의 세계 지배를 공식적이고 공식적인 권력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그들은 400년 넘게 비할 데 없는 결의와 강철 같은 의지로 이 놀라운 권력을 향해 싸워왔으며, 오직 기적만이 그러한 광신적인 전사들의 최후의 승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가 인류에게 비극적이고 잔혹하게 잘못된 것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무신론자 유대인들조차도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고대 유대인의 예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언덕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에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들이 땅을 소유하고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몇 블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 록웰 사령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한 1967년 전쟁 이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곧 그들에게 안겨줄 완전한 승리를 이미 감지하고 전 세계적인 광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 텔아비브에서 희생적인 승리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 모두가 범죄적 편집증 집단의 폭정에 굴복할 것이라는 이 형언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대부분의 우익 지도자들의 편협한 쇼비니즘, 보수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는 극도의 어리석음입니다!

잡종인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의 야만인을 이끌고 문명의 백인 엘리트를 상대로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종말이 몇 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장 근시안적인 지도자들만이 우리 아이들을 미국인, 딕시크랫, 가톨릭, 독일인, 양키, 무신론자, 네덜란드인, 보수주의자, 아일랜드인 등의 "팀"으로 분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슴 아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은 이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인입니다!

문명을 구하려는 자의 첫 번째 임무는 백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다른 모든 충성심보다 인종을 최고로, 그리고 완전히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민주당원이든, 독일인이든, 가톨릭교도든, 영국인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백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력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인종적 단결과 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유대인으로서 광적으로 싸우며, 결국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TV, 로켓, 제트 수송의 세계는 너무 작아져서 어떤 백인 집단도 유대인을 위해 서로 싸우는 자살적인 사치를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전에서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시오니스트 유대인이라는 광신적이고 사악한 적이 이끄는 끝없는 무리의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백인이 오랫동안 패배해 온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지 못했거나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수많은 사소한 다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그들의 인종은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비유 속 첫 번째 사람처럼, 우리는 그 길과 장애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겨야 할 목표, 즉 죽지 않으면 안 될 목표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목표는 백인에 의한 지구 정복이며, 또 그래야 합니다. 문명은 오로지 백인의 그러한 정복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목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교수형에 처해질 사람이 비타민을 먹고 완벽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토록 환상적으로 어렵고 우주적인 목표

행운, 은밀한 행동, 어중간한 대책, 기도, 희망, 훌륭한 연설, 팸플릿, 또는 산발적인 폭력으로는 지배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성해야 할 것은 유대인 마르크스-시오니스트 혁명에 맞선 세계 반혁명입니다.

그리고 혁명은 결코, 결코, 결코 자발적이고 우연한 봉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거대한 사회적 격변의 불변하는 법칙에 기반한 무자비하고 과학적인 계획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쇠스랑과 바리케이드 뒤에는 언제나 계획자들이 촛불을 들고 벌인 음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은 순식간에 끝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수 지도자들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목표의 전례 없는 규모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에 있어 자신들의 끔찍한 책임에 직면하는 데도 유독 실패했습니다. 자칭 지도자들이 번번이 나타나 호랑이 꼬리 끝을 물어뜯으려는 비참한 노력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결국 우리의 재산과 피, 그리고 영웅적 행위를 헛된 투쟁에 낭비했습니다. 결국 그 투쟁은 언제나 짐승의 발톱에 맞은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에 짓밟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유대인 세계 혁명은 오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만 깨지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반세계 혁명.

모든 혁명은 대중 속의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철칙에 따라 신중하고 정확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국제적이고 압도적인 힘에 맞서는 세계 혁명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과 무자비함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혁명이라는 격변적인 사회적 격변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입니다. 어쩌면 잔혹하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입니다. 인류의 격변을 목표로 할수록,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쏟아야 할 피와 눈물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서구 세계의 자살적 추세를 역전시키고 백인의 생존을 천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거대한 운동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시작할 수는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평범한 고통과 순교조차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불태워야 할 운동에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세계 정복을 위한 현재의 치열한 전투에 관한 모든 것은 현재 진행 중이며,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이고, 우승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올림픽의 고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운동은 언제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의를 향한 자기희생적 헌신의 열정으로 스스로를 불태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대중은 "유리한 무역수지!" 또는 "주권!" 등의 외침으로 혁명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도록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 정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충동만이 느리게 움직이는 대중을 무지한 무관심에서 혁명의 거센 파도 속으로 완전히 몰아넣는 감정의 격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영웅주의만큼 대중의 이러한 근본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으며, 오직 최고의 영웅주의만이 백인을 무기력함과 유대인에 대한 마비된 공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스티카 외에는 어떤 상징도, 아돌프 히틀러 외에는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이 상징은 백인을 단결시키고 저항할 수 없는 반유대주의 마르크스-시오니스트 혁명의 물결 속으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박해와 그에 따른 영웅적 행위를 낳도록 아름답게 계산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 세계 백인들은 공동의 대의, 공동의 영웅, 공동의 순교자, 신성한 성지, 이름, 상징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백만 명의 젊은 독일 백인들이 백인 엘리트를 위한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싸움에서 영웅적으로 소중한 목숨을 내던진 후, 우리는 마침내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피에 젖은 성지, 상징, 그리고 순교자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수백만 명의 소중한 젊은 백인 남성들은 악마적인 공산주의-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피의 희생을 치르고, 이를 통해 다시는 유대인과 흑인을 위해 싸우는 귀중한 백인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자기희생과 영웅심의 행운아들, 즉 이 귀중한 피 묻은 깃발과 신성한 이름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비현실적"이라 여기며 거부합니다.

"국가사회주의와 나치 독일의 스와스티카를 공개적으로 고수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신사들은 힘없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너무 미워하도록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입니다. "만자를 사용하고 히틀러를 너무 공개적으로 찬양하면, 그들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제작자들을
붉은 혁명을 주도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혁명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를 죽이기도 합니까?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유대인 무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비겁해야 합니까? 그런 우유부단한 인물들이 피하려고 애쓰는 박해와 유혈 사태 자체가 우리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 유대인의 권력 중심지인 미국에서 구타당하고, 감옥과 정신병원에 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짐승처럼 살면서 이 말의 진실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오늘로부터 12일 후,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불쾌하고 가슴 아프기까지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저는 2년 만에 백인을 위한 전 세계적 싸움에서 지휘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일푼이고,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개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피와 눈물의 바다에 씻기고 적셔진 귀중한 이름과 상징인 만자와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화려한 정치적 성공은 언제나 쉽다.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노력과 땀으로 코트를 채울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재킷에 패드를 넣는 편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다. 지난 50년 동안, 패드만으로 구성된 "우익" 또는 백인 운동은 꾸준히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모성애와 미덕과 애국심 등을 지지하고 그러한 조직의 실제 목적에 대한 잔혹한 진술을 피함으로써 – 이는 필연적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적, 공산주의-시오니스트들, 즉 겁 많은 "애국자", "보수주의자", 심지어 "강경한" 반유대주의자들까지 무리 지어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혁명적 열정에 너무 불타올라 거리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에 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국자" 사회에 가입하여 유대인과 그들의 반역, 그리고 테러에 맞서 싸우는 척하며 죄책감을 달래려 합니다. 그들은 "영리한 지하 수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대인과 흑인의 폭정에 대한 억눌린 좌절감을 일주일에 한 번 "집회"(물론 비공개)에서 해소한 후, 또 한 주 동안 이윤과 파티, 그리고 TV를 즐기러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마이티 마우스들은 거리에서 팸플릿을 나눠주거나, 유대-공산주의자들의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위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으면 경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체뿐만 아니라, 진짜 싸움을 위해 지지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게으름뱅이들까지 폭로하면, 이 영웅들은 자신들을 모두 나치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선동가라고 소리치며 응수합니다. 역겹도록 비겁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나치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계 반유대 혁명의 임무는 이런 비열한 놈들을 끌어들이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몰아내고 사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수년간 그래왔듯이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위한 얼마 안 되는 지원금을 운동에서 짜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스와스티카만큼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꾼, 폭리꾼, 매춘부, 겁쟁이들은 마치 악마가 성수에서 빠져나오듯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이 갈고리 십자가에서 빠져나갑니다.

반면, 스와스티카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담하고 용감하며, 무모하게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닙니다. 미국에서는 그들 대부분이 순수한 백인 남성의 본능 때문에 흑인 혐오주의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수치스러운 흑인 문제에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나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해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운동의 더 깊은 의미, 이상주의, 그리고 진정한 목표.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피로 물든 만자(卍字)가 유대인들에게 초자연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은 선 몇 개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을 평소의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히스테릭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만자(卍字)는 단순한 검은 선이 아니라, 그들의 죄책감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잔혹한 폭로, 신속한 재판, 그리고 끔찍한 복수라는 끔찍한 위협입니다. 마치 추적당하는 살인자에게 전기의자가 놓인 것과 같습니다.

침착하고 계산적인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짐승입니다. 악마적이고 변태적이지만 뛰어난 이성을 발휘하여 유대인은 우리 모두를 거의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증오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쳐버린 히스테리적이고 비명을 지르는 유대인은 계산적인 국가사회주의자의 손아귀에 놓인 무력한 퍼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를 거듭거듭 증명해 왔습니다. 유대인 의회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무시하라고 선전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작은 죄인들 무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자를 보고 우리가 아돌프 히틀러를 칭찬하고 반역자들을 위한 가스실을 묘사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거친 게토 유대인이 되었고, 증오와 복수에 대한 미친 열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영원히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정치 운동의 생명선, 바로 홍보가 탄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공공 정보 매체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나치 문양과 국가사회주의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은 은폐되거나 무시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힘을 깨닫고
검열. 그리고 젊은 운동이 거대 국영 방송망, 잡지,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공표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러한 운동을 바라는 좌절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어떤 "애국자" 단체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지만 미국 나치당과 세계노동조합연맹(WUA)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 [참고: 록웰 사령관은 1967년 6월 마지막 전국 참모 회의에서 자신의 조직 이름을 공식적으로 국가사회주의 백인 인민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만자와 히틀러는 맷돌이기는커녕, 실제로는 우익의 영원한 문제인 돈에 대한 답입니다!
종이, 회의장 등을 살 돈이 없을 때 - 우리 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거리로 나가 행진하고 직접 만든 전단을 뿌리고 피켓 시위를 벌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광분하여 공격하고, 그러면 수백만 달러어치의 유대인 TV, 신문, 잡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를 흘리고 감옥에 갇혀 요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놀라운 결과에 비하면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나치라는 공개 작전에 대한 무료 홍보 담당자 외에도, 그 대담함 자체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젊은 투사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의 정치에는 관심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용기와 대담함을 존경합니다. 나중에 사실을 조금 더 알게 되면, 그들은 이상과 백인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당신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이 소중한 수호자들은 그저 재미로 싸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만자는 우익의 근본적인 오류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 달콤한 이성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유대인 폭군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이성은 인간사에 있어 아직 유아기에 불과하며, 극소수의 호모 사피엔스의 돌연변이 뇌에서 발견되는 귀중하고도 드문 발달 단계입니다. 심지어 순수하고 독립적인 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의 천재들조차도 그 이성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과 그들의 이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끝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 권력, 힘입니다.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서부터 이웃이 로타리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우월한 주장에 설득되어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극소수의 괴짜 인간뿐입니다. 압도적인 대중, 그중에서도

오늘날의 "지식인"들은 순응하기 위해서만 마음을 바꾼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마음은 항상 가장 강력한 의견, 즉 보상을 가져오고 처벌을 피하는 의견에 굴복한다.

우익은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 그리고 사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진실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다음 옆집의 게으른 놈들이 그 정당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아마도 "증오"를 설교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일 뿐입니다. 게으른 놈들은 가장 강력하고 권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어떤 의견이든 고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완전히, 절망적으로 여성적이며, 항상, 언제나 "정당성"보다는 힘을 선호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만자와 국가사회주의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영원한 여성으로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만약 당신이 내 "아니오"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약자이고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예"라고 말하게 할 만큼의 남성성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성으로도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의 사상을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화하려 해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배짱, 우리의 힘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찬사를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들의 본능적인 힘과 강인함은 여전히 순수하며, "애국자 연맹"이나 다른 멋지고 안전한 단체의 모습으로 국가사회주의 사상을 은밀하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그들을 겁쟁이와 은밀한 자들의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활하고 안전한 접근 방식은 지옥에나 가라! 그런 접근 방식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접근 방식만큼이나 우리를 박해하고, 매번 우리를 비참하고 은밀한 실패로 몰아넣는다. 만약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백인들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 만약 우리가 마침내 쥐 떼에게 압도당해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종족의 죽음에 맞서야 한다. 마치 인간처럼.

쥐들 사이로 기어들어가 자비를 구걸하거나, 쥐들을 따돌리고 우리도 쥐인 척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역사의 단상에 서자 - 우리는 꼭 그래야만 한다.

뉘른베르크의 순교자들, 키가 크고 당당하군요! 삶이 이토록 달콤하고, 편안함이 이토록 소중하며, 유대인 회계 사무실의 일이 이토록 신성하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뻗어 오는 아돌프 히틀러의 강력한 손을 잡기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몰래 다니면서 안전하게 지내는 건 지옥이야!

유대인은 교활하고 은밀한 존재입니다. 우리 민족의 천재성은 언제나 기쁨에 찬 힘, 강인한 결단력, 솔직함, 남자다운 용기, 그리고 불타는 영웅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제적 테러리즘, 감옥, 깡패, 사형 집행인 등으로 백인들을 겁먹게 하고, 유대인의 폭정을 교묘히 피하려 하도록 부추길 때, 유대인들은 한때 강했던 백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불명예와 패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백인은 결코 교활함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북유럽 문명의 여명기, 열등한 종족들은 초라한 오두막에서 움츠러들며 "주님, 북방인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서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만약 지금 문명이 타락한 유대인 무리, 그들의 식인종 공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한 자유주의 친구들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해야 합니다. 절대 몰래 숨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백인이여! 그대의 혈관에는 위대한 조상들의 철혈이 흐른다! 아돌프 히틀러의 우뚝 솟은 모습이 거대한 손을 뻗어 그대를 세계 정복의 힘으로 들어올린다! 피그미족 앞에서는 이미 충분히 움츠러들었다! 이제 일어나라! 발밑의 쥐와 해충들을 물리쳐라! 그들이 그대의 부츠의 발가락과 뒤꿈치를 만지게 하라! 그들을 짓밟아라!

당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어나 일어설 때, 그리고 대중이 다시 한번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불태운 국가사회주의의 불꽃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으니, 당신은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IN HOC SIGNO VINCES! 만자(卍字)의 표시 안에서, 당신은 정복당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아이슬란드, 덴마크, 그리고 다른 백제 국가들의 영웅들과 함께 손을 잡으세요. 그들은 신성한 만자(卍字) 깃발을 들고 피로써 그것을 수호했습니다.

베를린의 잿더미가 되어 다시는 끌어내리지 않으리라. 아돌프 히틀러와 세계를 정복한 백인 종족의 제단 앞에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처럼 서구 백인 문명의 질서와 정의를 다시 한번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맹세하자.

배신자들과 쥐들과 피그미족들에게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오두막에 웅크리고 "주님, 북부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 나의 군단병들을 위해 제8장

#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에 대하여

코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 의회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는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고, 나는 그 중 혼자였다.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내게는 의회 생활의 경험도, 공허하지만 거만하고 번뜩이는 어법과 거울에 비친 듯한 몸짓, 그리고 과한 무례함으로 가득 찬 민주적 웅변의 재능도 없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을 신은 내게 주지 않으셨다. 아마도 정치적 사다리를 오르려는 유혹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의회에 있는 동안 저는 제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 가장 큰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예의범절과 존중의 법칙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다는 것은 제가 그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고립된 채로 남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대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꽤 늦은 시간, 심의가 거의 끝나가고 의석이 거의 비어 있을 때,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유대인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을, 침략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인간의 비참함이 가장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무레시에서 우리 땅에 유대인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루마니아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루마니아 국민의 지도자들, 민주주의와 정당의 세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루마니아인들을 배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국가적 또는 국제적 금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는 유대교의 음모와 부패의 소굴인 마모로쉬 블랭크 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은행이 돈을 "빌려준" 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란트쉬 씨,
국무부 차관 1 1 1,000 레이; 방카 타라네아스카 씨.
다빌리아, 4,677,000 레이; 루니안 씨 407,000 레이; Madgearu 씨 401,000 레이; Filipescu 씨 1,265,000 레이; Raducanu 씨 3,450,000 레이; Raducanu 은행 10,000,000 레이; Mr. Pangal (루마니아의 Scottish Rite Masonry의 수장) 3,800,000 lei; 씨.
Titulescu 19,000,000 lei—모두 루마니아 대중의 지도자들

삶. '이것들 외에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목록을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이건 빌린 돈이니까 곧 갚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돈이 갚힐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재정적 원천에서 돈을 빌릴 때 그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만족시키거나, 심지어 권력이 없더라도 그것을 지지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권력이 노출되어야 할 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때 저는 목록을 읽고, 부인할 여지를 없애고 전쟁 이후 루마니아 국가가 민주주의 하에서 약 500억 레우를 어떻게 빼앗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가장 명예롭고 완벽한 정부 형태였습니다! "민주주의"의 지도부는 국민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대한 통제자인 국민은 1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500억 레우라는 엄청난 액수를 빼앗겼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몇 가지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나는 일곱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1. 우리는 공적 자금을 사기적으로 조작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신학부 교수인 이스피르 씨가 제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코드레아누 씨, 당신은 스스로를 기독교인, 기독교 이념의 전파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제시한 생각은 반기독교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 조국의 죽음과 그 도둑의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면, 저는 도둑의 죽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제 조국을 파괴하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우리는 재산의 조사와 몰수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나라를 피 흘리게 한 사람들 중 하나.

3. 우리는 그늘진 개인적 투기를 지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정치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성.

4. 우리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다양한 은행 및 금융 기관의 행정 위원회

기업.

5.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부를 빼앗고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을 착취하기 위해 이곳에 온 무자비한 착취자 무리를 몰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6. 우리는 루마니아의 영토가
루마니아 국민의 양도 불가 및 무효화 불가의 재산입니다.

7. 우리는 모든 선거 운동원을 파견하여 활동하게 하고, 루마니아 국민 전체를 하나의 박자와 하나의 정신으로 고무시킬 단일 지휘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 정치적 조치를 공개적으로 공식화하려는 최초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숙고나 이념적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루마니아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체 없이 순간적으로 성찰한 결과였습니다.

6개월 후, 꽤 인기 있는 몇몇 운동이 등장했는데, 그 운동들은 제가 처음에 제시한 세 가지 요점을 그들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1. 사형제,

2. 부의 조사 및

3. 정치인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정치인이 행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민주주의에 관한 몇 가지 관찰

다음 글에서는 제가 매일 경험한 몇 가지 결론을 젊은 군인이나 노동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옷, 민주주의의 형태들. 과연 그것들이 좋은 걸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크고 더 문명화된 유럽 국가들 중 일부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옷들을 입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옷이라서 벗어버린 걸까요? 다른 나라들도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그럴까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걸까요?

미쳐버린 걸까? 루마니아 정치인들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남았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를 바꾼 사람이나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다른 사람의 이유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 루마니아인들이 민주주의의 옷을 벗게 만드는 이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버릴 이유가 없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적합하다면, 설령 유럽 전체가 그것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민주주의는 루마니아 국민의 단결을 깨뜨리고, 여러 당파로 분열시키고, 선동하고, 결국 분열시켜, 역사의 어려운 시기에 유대 권력의 단결된 세력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 주장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에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므로, 우리의 단결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즉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민주주의를 바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분열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민주주의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루마니아 시민으로 변모시킵니다. 그들을 루마니아인과 동등하게 만들고 국가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말입니다. 평등이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쟁기와 무기, 노동과 피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겨우 100년, 10년, 또는 5년밖에 살지 못한 사람들과 동등해야 합니까?

과거에는 이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대루마니아의 존재에 대한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루마니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루마니아 국가가 사라진 데 대해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요약하자면, 그들은 국가를 만든 노동, 희생, 투쟁에서 평등하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책임. 평등? 고대 격언에 따르면 평등은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근거로 평등한 대우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가?

루마니아인과 동등한가?

3. 민주주의는 노력의 연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1년, 2년, 3년을 집권하는 정당들로 분열되어서는

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달성하는 것.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계획과 노력을 무산시킵니다. 한 당사자가 구상하고 건설한 것이 오늘 다른 당사자에 의해 파괴됩니다. 건설이 필요한 나라, 그 역사적 순간이 바로 건설인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은 위협이 됩니다. 마치 농장 주인이 매년 바뀌면서 각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전임자가 했던 일을 없애고, 다음 주인이 와서 그들의 일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4.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선의가 강한 정치인이라도 민주주의에서는 지지자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아니면 그의 지지 기반을 파괴합니다. 정치인은 선거 관리인의 폭정과 끊임없는 위협 아래 살아갑니다. 그는 평생의 노동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자들의 만족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지지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자신의 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말입니다. 그는 일자리, 직위, 임무, 위원회, 한직을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어 국민들의 허리를 점점 더 굽게 만듭니다.

5. 민주주의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재할 힘이 없습니다. 정당은 지지자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추문에 휩싸인 사업 거래, 절도나 횡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 적대 세력이 자신의 불법적인 거래와 부정을 폭로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6. 민주주의는 막대한 재정에 의존합니다. 값비싼 시스템과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 때문에 민주주의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대한 국제 금융의 노예가 되고, 국제 금융은 보조금을 통해 그들을 예속시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의 운명은 은행가 계급의 손에 맡겨집니다.

# 선거, 선발, 유전

국민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끌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공식도 아니고, 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끌리지 않습니다. 독재 공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삶의 규범, 즉 자연 법칙이 있고, 죽음의 규범, 즉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삶의 법칙과 죽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 두 법칙 중 하나를 존중하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 국가에서 누가 이러한 규범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거나 알 수 있을까요? 국민일까요? 아니면 대중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간단한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그들에게 이해되려면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처벌까지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의 몇 가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전염성 질병의 경우, 환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격리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집에 들어와야 하므로 집에는 큰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가축에게 더 잘 먹이고 돌보면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영양 등. 대중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면, 누군가가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이끌어져야 하며 가장 어려운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가장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인간 리더십 규범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 그 삶, 그 삶의 필수품을 넘어서는 프로젝트이거나,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더 우월한 실체인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젝트인가요?

빵 만들기, 신발 만들기, 쟁기질, 농사짓기, 전차 운행 등 모든 일에는 전문화가 필요한데, 전문화가 필요 없는가요?

가장 힘든 리더십, 즉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에 관해서라면, 특정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결론: 한 민족은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은 엘리트에 의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 적성과 자질을 갖춘, 그 품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통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특산품. 벌들이 "여왕"을 키우듯이, 국민은 엘리트를 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도 필요에 따라 엘리트, 즉 국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누가 이 엘리트를 선택하는가? 바로 대중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공직에 출마하는 누구에게든 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그 "아이디어", "법", 또는 "후보"를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 즉 대중의 호의를 얻으려는 개인의 재치에 달려 있다. 이보다 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

대중보다 의견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이 대중은 차례로 이베리아인,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민족농민주의자, 요르간주의자 등으로 나뉘어 각각을 찬양했지만, 1년 후에는 각각에게 침을 뱉으며 자신의 오류,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자"였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판단과 지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그리고 운에 의존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입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뿐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투표에 부쳐집니다. 한 아이디어는 10,000표를, 다른 아이디어는 10,050표를 얻습니다.
50표 정도의 차이로 진실이 결정되거나 부정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다수나 소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다수파에 대항하여 성공하는데, 비록 그들이 압도적일지라도 말이다.

진실을 찾는 일은 다수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 타당성을 결정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다수에게 투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은 질소와 수소의 양을 투표에 부칠 만큼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는 수년간 농업과 그 법률을 연구한 농업 경제학자로서

다수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국민이 엘리트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군인들은 왜

최고의 장군을 고르는 게 어때요? 이 집단 배심원단은 최고의 장군을 고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전략, 전술, 조직 등의 법칙 및

b) 해당 개인이 적성과 지식을 통해 이러한 법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이러한 지식 없이는 누구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대중이 엘리트를 선택하려면 국가 조직의 지도력 법칙과 그 지도력 후보자들이 자격과 지식 면에서 해당 법칙을 얼마나 준수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이러한 법칙이나 후보자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지도 엘리트가

국가는 다수에 의해 선택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엘리트를 선택하려는 것은 마치 다수결 투표로 한 나라의 시인, 작가, 기계공, 비행사, 운동선수가 누구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원칙에 기반하고 엘리트를 스스로 선출하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마을의 온갖 부당함, 무질서, 그리고 비참함이 싹텄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적 개념의 오류에서 다른 모든 오류들이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엘리트를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엘리트를 발견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가 내에서 최악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엘리트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최악의 엘리트들로 대체합니다. 민주주의는 양심이 전혀 없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더 나은 자들은, 더 큰 부패의 힘을 가진 자들, 즉 마술사, 사기꾼, 선동가들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심지어 선의의 정치인들까지도, 끼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자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엘리트는 패배하고 제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기반 위에서 경쟁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후퇴하고 숨어 지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가
가장 나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건강에 해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소위 "엘리트"가 이끄는 나라라면, 왜 그런지 묻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다른 모든 악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국에 만연한 부도덕, 부패, 그리고 탐욕; 국가 재산에 대한 절도와 약탈; 국민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착취; 국가의 빈곤과 비참함; 모든 기능에 대한 의무감의 결여; 국가의 무질서와 혼란; 돈을 든 외국인들의 사방에서의 침략. 파산한 상점의 상품이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경매에 부쳐집니다.

"누가 더 많이 내는가?" 결국 민주주의는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특히 전쟁 이후 민주주의가 이 선거 제도를 통해 용기나 국가에 대한 사랑이 아닌 로마-유대인의 "국가적 엘리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배신, 개인적 이익의 만족, 뇌물, 영향력의 거래, 착취와 횡령을 통한 부의 축적, 도둑질, 비겁함, 그리고 모든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국가 엘리트"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끈다면 루마니아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오늘날 루마니아 국민이 직면한 문제, 즉 다른 모든 국민이 의지하고 있는 문제는 이 가짜 엘리트를 미덕,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생, 정의와 국민에 대한 사랑, 정직, 노동, 질서에 기반한 진정한 국가 엘리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규율, 정직한 거래, 명예.

누가 이 대체를 해야 할까요? 누가 이 진정한 엘리트를 지도부 자리에 앉혀야 할까요? 저는 대답합니다. 대중은 제외하고 누구든 말입니다. 루마니아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제외한 모든 체제를 인정합니다.

새로운 루마니아 엘리트는 물론 세계의 다른 모든 엘리트도 사회 선택의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특정 자질을 갖춘 계층은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몸, 즉 토지와 국가에 영구히 결속된 크고 건강한 농민과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선발됩니다.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국가 엘리트가 됩니다.

언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언제 해야 할까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중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특정 길을 따를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이며, 특정 인물을 선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에 의한 엘리트.

하지만 제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누가 엘리트 내에서 모든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고, 누가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까? 누가 새로운 엘리트 구성원을 선발하고 성별합니까?" 저는 "이전 엘리트입니다"라고 답합니다.

후자는 선택하거나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자신의 능력과 도덕적 가치를 통해 스스로 높인 자리에 봉헌합니다. 봉헌은 엘리트 수장이 협의하여 실행합니다.

엘리트와 함께. 따라서 국가 엘리트는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을 상속 엘리트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트는 유전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회 선택의 원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유전의 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선택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 내부의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엘리트는 항상 활력을 유지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수는 엘리트가 다음과 같은 기반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원칙을 포기한 민주주의는 다음 날, 자신을 탄생시킨 바로 그 원칙을 폐기하고, 대신 유전의 원칙을 도입하여 부당하고 비난받는 특권 체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저항, 타락한 엘리트의 제거, 그리고 출생에 따른 특권의 폐지를 위해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선택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거짓되고 타락한 엘리트를 낳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선택의 원리는 선택의 원리와 유전의 원리를 모두 제거합니다. 이 둘은 서로 상쇄됩니다.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선택의 원리가 존재하거나 유전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중의 의견과 투표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후자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며, 그런 경우에는 선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선택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유전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선택의 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 이 두 원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 국가에 진정한 엘리트가 없다면, 즉 두 번째를 지칭하는 첫 번째 엘리트가 없다면?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한 구절로 답합니다. 그 경우, 진정한 엘리트는 타락한 엘리트, 즉 거짓 엘리트와의 전쟁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택의 원칙에 따라 말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엘리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민의 생활 법칙에 따라 국가를 이끈다.

b) 유전의 원칙이 아닌 선택의 원칙에 근거한 상속 엘리트를 남겨두는 것, 왜냐하면 엘리트만이 삶의 법칙을 알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순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칙에 대한 적성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정원을 가꾸면서 죽기 전에 상속자, 즉 대체자를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 누가 상속자인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원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의 일을 계속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엘리트는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a) 영혼의 순수함.

b) 업무 능력과 창의성.

c) 용기.

d)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힘든 생활과 끊임없는 전쟁,

e) 빈곤, 즉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f) 신에 대한 믿음.

사) 사랑.

지금까지 우리의 활동이 기독교회의 활동과 같은 노선을 따라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노선과 교회의 노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교회는 위로부터 우리를 지배합니다. 교회는 완전함과 숭고함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차원을 낮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통해 이 선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의 육신의 죄의 무게와 원죄로 인한 타락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이 선을 향해 일으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 이 선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 개인, 국가
## 집단성, 국가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에 의해서도 제한됩니다. 인권에는 세 가지 뚜렷한 실체가 있습니다.

1. 개인.

2. 현재의 국가적 집합체, 즉 특정 시점에 어떤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의 총체.

3. 국가는 수세기 동안 생명을 이어온 역사적 실체이며, 그 뿌리는 시간의 안개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큰 오류는 이 세 가지 실체 중 개인만을 인정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체는 무시하거나 조롱합니다.

세 번째는 부인합니다.

그들 모두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존권과 다른 두 사람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목격하게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무한한 권리로 전체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믿고, 전체 집단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탈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이런 분열의 광경,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를 목격하게 된다.

결국, 국가 집단은 현재의 이익을 위해 미래, 즉 국가의 권리를 희생하는 영구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무자비한 착취와

우리의 숲, 광산, 석유 매장량을 소외시키고, 우리 뒤를 이어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살고 삶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수백 명의 루마니아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격변, 관계의 단절은 진정한 무정부 상태이며, 자연 질서를 뒤엎는 것이며, 오늘날 사회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조화는 자연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만 재구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상위의 실체인 국가 집단에 종속되어야 하며, 국가 집단은 다시 국가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이지 않고, 국가 집단의 권리에 의해 제한되며, 이 권리는 다시 국가의 권리에 의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적어도 그토록 많은 권리를 누리는 개인은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궁극적 비극입니다. 개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은 공포, 포위, 검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일부는 신앙 때문에 살해당합니다. 마치 가장 폭압적인 지도자들의 통치 아래서처럼 말입니다. 집회가 금지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투표조차 금지되고, 학대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해당하는 이 시대에, "주권 대중의 권리"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형태의 정부를 수립하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헌법과 정부 형태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원하는 대로 더 크거나 적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최악의 비극이다.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합니다. 인간은 국가 공동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은행가와 선거 관리인으로 구성된 정치자금가 계층을 위해 권리를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민주주의는 비할 데 없는 배신을 통해 이 지상 평화의 사도로 위장하면서도 동시에 인간과 신 사이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고, 신에 대항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배신은 우리 구세주의 말씀인 "평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사도로 변장하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며, 그분을 정죄하고 인류의 원수로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배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척하면서, 악마처럼 그들을 영원한 저주로 정죄합니다.

# 더 네이션

루마니아 국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같은 영토에 살고 같은 과거와 같은 미래, 같은 복장을 공유하는 모든 루마니아인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거나 죽은 모든 루마니아인들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이 땅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미래에도 여기서 살 것이다.

이 국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현재 살아있는 모든 루마니아인.
2. 우리 죽은 자들의 영혼과 우리 조상들의 무덤.
3. 루마니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한 민족은 자신의 목표뿐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스스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다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육체적, 생물학적 유산 - 그녀의 살과 피.
2. 물질적 유산 - 그녀의 나라의 토양과 그 부.
3. 다음을 포함하는 영적 유산:

a) 그녀의 신, 세계, 그리고 삶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은 하나의 영역, 즉 영적인 속성을 형성합니다. 이 영역의 경계는 그녀의 개념이 밝아지는 지평에 의해 결정됩니다.

도달합니다. 국가 정신의 나라, 계시나 자체적인 노력으로 얻은 비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b) 그녀의 명예는 그녀의 역사 속에서 신, 세계, 삶에 대한 그녀의 개념에서 비롯된 규범에 국가가 적응해 온 정도에서 빛납니다.

c) 그녀의 문화, 즉 예술과 사상의 영역에서 그녀 자신의 노력으로 탄생한 그녀 존재의 결실. 이 문화는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재능, 즉 혈통의 표현이다.

문화는 그 광채가 도달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국제적이지만, 그 기원은 국가적입니다. 누군가 아름다운 비유를 했습니다. 빵과 밀은 소비재로서 국제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자란 땅의 흔적을 어디든 가지고 다닙니다.
이 세 가지 유산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지닙니다. 국민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유산은 영원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만이 여러 세기를 거쳐 지속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체격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다. 체격도 재뿐이고, 물질적 부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문화 때문에 기억된다.

국민은 그 나름의 관점, 명예에 대한 관념, 그리고 문화를 통해 영원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체적 또는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명예, 즉 영원한 이익을 고려하여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빵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국가의 최종 목표

이게 인생인가?

만약 그것이 생명이라면, 사람들이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악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국가들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따르는가? 바다의 물고기처럼, 아니면 숲 속의 짐승처럼, 동물적 본능, 즉 호랑이의 본능에 따라야 하는가?

최종 목표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족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문화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신 재능의 열매이며,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의 모든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왕과 황제들, 각 민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각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 "죽음에서의 부활"은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 지상 너머까지 그 존재를 연장하는 실체입니다. 민족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승에서도 실체입니다.

성 요한은 지구 너머에서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1]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당신 앞에 경배하리니, 당신의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2]

우리 루마니아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에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역사적 운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따라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이 운명의 길을 걷고,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골고다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길었다 하더라도 결코 무기를 내려놓거나 사명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산처럼 높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의 압력에 굴복하여 루마니아의 운명이라는 길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나약하고 비겁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될까요?

## 군주제와 군주제법

[1] (요한묵시록 21장 23-24절)

[2] (요한계시록 15장 4절)

국민의 수장, 엘리트 위에 군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공화국을 거부한다.

우리는 선한 군주도, 매우 선한 군주도, 약하거나 악한 군주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군주는 명예를 누리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군주는 참수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군주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주정 자체는 항상 좋은 것이었습니다. 군주와 제도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쁜 사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폐지되어야 하고, 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약하고 나쁜 군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주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에서는 풍년 다음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한 해 이어 흉년이 두 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느 누구도 농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는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군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작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크다. 각자에게
신은 국가에 운명의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군주는 그 선에 머무를 때 위대하고 선합니다. 하지만 이 운명의 선에서 벗어나거나 거스르는 만큼 그는 비천하고 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주정의 법칙입니다. 군주를 유혹하는 다른 선들도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 그리고 (국내든 국외든) 이질적인 이익의 선입니다.

그는 이 모든 노선을 피하고 그의 민족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슈테판
위대한 왕은 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빛났으며, 루마니아 국민들은 그가 국민의 운명에 완벽하게 공감했기에 그를 기억합니다. 페르디난드 국왕은 외부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는 국민과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덕분으로 그는 위대하고

죽지 않는.

# 투토바 전투,
# 1932년 4월 17일

네암츠에서 선거가 치러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젊은 군단병들이 새로운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1932년 1월 초, 투토바의 한 의원석이 공석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참고: 투토바 주(州)의 소재지는 바를라드입니다.]

저는 상황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겨우 500표를 얻었습니다. 그 지역은 약했지만, 코불루이, 카훌, 테쿠치와 같은 강력한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군단병들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승리의 메아리가 미칠 파장을 생각하며 말입니다. 모든 정당을 상대로 가장 젊은 세대가 두 번 연속 승리한다면, 전국민의 눈에 그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출마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 안팎에서 조직과 선전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저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3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1월 9일, 저는 온 주에 선언문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1월 10일에 첫 선거팀을 이끌고 도착했습니다. 그 후 이아시, 테쿠치, 베레스티, 차훌에서 온 선거팀이 도착했습니다.

처음 3주 동안, 소규모 군단병들의 빠른 속도와 용맹함은 온 지역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폭설과 추운 날씨로 혹독한 겨울에는 정당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군단병들은 언덕을 넘고,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눈보라를 뚫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2월 초순 무렵, 적과의 싸움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유주의자, 국민농민, 루피스트[참고: 루푸 박사의 당원] 및 쿠지스트 연합이 우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맹렬한 기세였습니다. 정부는 진정한 테러리즘적 조치를 취했고, 유대인 언론은 우리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원군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토투가 이끄는 이아시의 마지막 예비군을 파견했습니다. 부쿠레슈티 외에는 다른 예비군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단병들의 회의에서 영웅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즉, 부쿠레슈티에서 바리아드까지 도보로 출발하여 거의 200마일을 이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행진이 군단병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10만 개의 선언문보다 더 큽니다. 그것만으로도 군단병들이 투토바의 루마니아인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영웅적 담론이 될 것입니다.

군단병들은 제 제안을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스텔레스쿠, 카라타나세, 도루 벨리마체가 이끄는 약 25명의 부대가 부쿠레슈티를 떠나 투토바로 향했습니다. 폭풍우 속 열흘간의 행군 끝에 그들은 바리아드에 도착하여 온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신경이 곤두서는 긴장감으로 고조되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아르게토이아누는 이냐트 대령을 대군으로 파견하여 투토바 주에서 군단병들을 들것에 실어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규모 부대로는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터 실라기와 스텔레스쿠의 지휘 아래 두 개의 강력한 부대를 편성하여 서로 지원하며 아버지를 지원하며 푸에스티-드라고미레스티 선을 따라 진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규모 부대를 바카니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경로는 조사되지 않은 유일한 두 경로였습니다. 이 두 경로는 투토바 주의 북동쪽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남쪽은 아버지인 군수 D. 포페스쿠 씨, 빅터 실라기, 테오도르 틸레아, 이온 안토니우가 1군을 이끌고 충분히 일했습니다.

북부의 두 팀은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거의 30마일을 전진했고, 토쿠를 비롯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운티 북부에서 그들은 대규모의

헌병 부대. 이들은 버려진 집 다락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48시간 동안 난방, 식량, 물 없이 저항했습니다. 결국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Victor Silaghi가 지치고 굶주리고 얼어붙은 군단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끈기 있게 노력했기 때문에 영웅적인 조건에서 실행된 힘든 야간 행군을 통해

마지막 가능한 저항.

1918년 비극적인 상황에서 헝가리인들에 의해 살해된 카레이 마리 출신의 루마니아 신부 실라기의 아들인 이 고아 아이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이 부대들은 우세한 병력에 포위당해 포로가 되어 바리아드로 압송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되어 연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팀은 바카니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에 진입하기 전, 그곳 계곡에서 대규모 헌병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팀의 지휘관인 군단병 라스카르 포페스쿠는 소총에 머리를 맞아 피웅덩이에 먼저 쓰러졌습니다. 다른 군단병들은 후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맨가슴으로 반격하며 손에는 아무것도 든 채 마을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 있던 한 명은 혼자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자 그는 무릎을 꿇고 일어나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는 동료들 근처에 쓰러졌습니다. 팀 전체가 피웅덩이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헌병들에 의해 눈 속을 질질 끌려 1마일도 넘게 마을의 헌병 초소까지 갔습니다. 그날 밤 1시에 기수 한 명이 바카니에서 일어난 일을 바리아드에 전했습니다. 토투가 이끄는 이아시 출신 팀은 자정에 바를라드에 도착했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 즉시 도보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3시 30분에서 5시까지 헌병들이 모든 무기를 발사한 전투가 끝난 후, 군단병들은 헌병 초소를 점령하여 바카니 전투에서 쓰러진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바를라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언론 캠페인을 벌이며 역겨운 냉소주의와 불의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거짓말, 모욕, 중상모략의 물결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모든 정치적
여러 집단이 연합하여 우리를 전투에서 배제했습니다.

# 두 번째 해산
# 1932년 3월 경비대

헌병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유대인 언론의 공격을 받은 우리는 단순한 장관의 결정으로 명령된 근위대 해산이라는 새로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합법성의 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르가-아르게토이아누 정부는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근위대를 자의적으로 해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본부는 다시 점거당하고 자물쇠가 채워졌으며, 이아시 인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언론의 공격을 받은 우리는 모든 출판물이 중단되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회에서 저는 발언을 시도했지만, 다수의 소음 때문에 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토바의 출마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출신 팀은 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추방당했습니다. 토투의 지휘 아래 약 30명으로 구성된 우리 이아시 팀은 같은 대피 작전을 위해 창고로 이동 중이던 지휘부는 경계선을 돌파하고 대기실을 점거한 채 24시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

가스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기차에 실려 카운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브라일레아누, 누투 에사누, 그리고 체포된 아버지만 마을에 남았습니다. 그 후 박해는

마을에서 농민, 교사, 성직자들이 체포되어 구타당했고, 그들의 집은 난입당했습니다. 선거는 한 달 연기되어 4월 17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는 풀려나셨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군단병들이 마을로 들어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흐리스타케 솔로몬, 캄부레아누 대령, 벤토닉, 이프림, 이시히 신부, 페첼리, 포토레아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여러 구역에 배치했습니다. 각자 밤을 틈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주에서 온 우리 부대는 다시 여러 지점에서 투토바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테아 대령의 부대는 바를라드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모든 도로가 순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투표소에 도착했습니다.

4월 17일 오전 투표가 시작되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4월 18일 오전 5시, 군단의 승리가 발표되었습니다. 5,600표, 자유당 5,200표, 국민농민당 5,200표.

4,000명; 다른 그룹: 2,000명 미만; 쿠지스트: 500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연합에 맞서 이 두 번째 군단의 승리는 군단병들의 용감무쌍함과 강철같은 의지, 영웅심과 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장애물, 모욕, 폭행, 박해는 전국에 형언할 수 없는 열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새로운 총선거 1932년 7월

제 아버지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휴식은 단 일주일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로르가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농민 정부가 수립되었고,
바이다 씨.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친 우리는 새로운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1932년 6월이었습니다. 1929년 12월 15일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1929년 12월부터 1930년 4월까지,
코불루이, 차훌, 투르다, 테쿠치에서의 전투; 1930년 여름, 베사라비아에서의 진군 준비 및 봉쇄, 그리고 그해 가을까지 투옥; 10월과 11월에는 마라무레슈에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도 다시 투옥되었다; 1931년 봄, 총선거를 앞둔 전투; 1931년 여름, 네암츠에서의 선거; 1932년 겨울, 투토바에서의 선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 모든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조직 활동을 계속했다. 작년에는 17개 주에서 선거인 명부에 올랐고, 올해는 36개 주에서 선거인 명부에 올랐다.

각 정당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음모로 가득 찬 같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룻밤 만에 36개 군에 있는 모든 후보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군인들 중 누구도 명단에서 자신의 자리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군단의 기부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카운티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세 납부에만 5만 레이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멍하니 걸었습니다. 하나, 둘 다 시도해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캘린더울("달력")의 감독인 니치포르 크라이닉 씨를 만나서 그가 돈을 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5개월간 발행한 일기를 통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우리 군단 팀의 용감한 행동을 한 걸음씩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피후와 카라니차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그들은 마케도니아 전역에 달려가 필요한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카운티는 폭사니와 일리스타케 솔로몬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새로운 박해가 우리 대열에 닥쳤다.
넓은 전선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빈약한 대열은 곳곳에서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단병 사빈과 포페스쿠는 티기나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를라드에서는 수많은 교사와 사제들이 제오르제스쿠-바를라드 씨의 명령에 따라 지하실로 끌려가 학대를 받았습니다. 바슬루이에서는 소규모 부대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포둘-일로아이에이와 이아시 주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차니에서는 노령의 흐리스타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솔로몬, 기술자 블라나루, 그리고 다른 열 명은 변호사 네아구의 명령으로 불투룰 마을에서 무장한 국민농민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단병들은 부상을 입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곤봉과 칼. 오직 한 사람, 흐리스타케 솔로몬만이 산처럼 두 발로 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맹렬히 자신을 방어했지만, 결국 길 한가운데 쓰러져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합법성, 문명화된 방식, 자유 등을 문제 삼는 이 짐승들에게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그 짐승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위대는 전년도의 두 배인 7만 표를 얻었습니다. 차훌, 네암트, 코부르루이 주

그리고 아버지가 출마했던 투토바가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은 캄풀룽과 모타, 그 다음은 투르다, 폭사니, 이스마일, 티기나였습니다. 우리는 다섯 의석을 차지했고, 이제 우리는 그 의석들을 채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누투 에사누가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차훌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25세 학생인 스텔레스쿠가 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바를라드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젊은이에게 보인 신뢰와 사랑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고: 저자는 여기서 스텔레스쿠의
그의 군단 동료들에 대한 미래의 배신.]

## 의회에서
## 두 번째 시간

나는 의회에 있는 동안 내내 루마니아 국민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부와 그 조치에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나는 이전의 모든 정부와도 싸웠습니다.

여러 정권이 번갈아가며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나라는 이 모든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정신은 그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치와 법률은 우리나라의 씁쓸하고 슬픈 존재를 날마다 연장하는 몇 가지 완화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비타에서 루마니아 노동자들이 내무부의 명령으로 총살당했을 때, 국민농민당 내의 친공산주의자들이 정부의 조치에 박수를 보내는 태도에 가슴 깊이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과 우리 국민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불의에 직면하여 나가지 않고 체념적으로 멍에 아래 머리를 숙이고 나라를 착취하는 정치인들의 손에 맡겨둔다면 더 나쁠 것입니다." [참고: 저자는 여기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33년 2월 4일, 국민농민정부의 통치 하에 부쿠레슈티의 그리비타 라피웨이 공장.]

이 세션의 공식 회의록을 인용하겠습니다.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씨...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속한 단체의 이름으로, 관계 당국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외에도 이 의회 내 다양한 정치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별도의 의회 조사가 실시될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내무부 장관의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월 24일, 루마니아 민족주의자이자 기독교인 학생들이 무명 용사의 무덤에 십자가를 놓기 위해 갔을 때, 국가보안국은 부쿠레슈티의 한 신문사에 그 행위가 모스크바의 음모와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그리비타 사건에 대한 당신의 정보도 그런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이 어제와 오늘처럼 이런 종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 잘 알겠습니다."

('The Iron Guard'와 그들의 벤치에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푸 박사의 농민당).

둘째, 저는 이 나라의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나 볼셰비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노동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 즉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The Iron Guard'와 그들의 벤치에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푸 박사의 농민당).

"그 노동자들 중 일부는 한 달에 1,100레이만 벌고 5, 6,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V. 루푸 박사: "그렇습니다."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씨: "아이가 5, 6, 7명이나 되는데 그런 급여로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조차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것이 두렵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의에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N. 리푸 박사: 아주 좋아요!

코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 "그러므로 당신은 이 두 가지 욕구, 즉 굶주림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철의 수호자'와 루푸 박사의 농민당 의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옴) "그리고 이 나라는 완전한 질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33년 2월 16일 목요일 회의. 1933년 2월 23일 공식 모니터 41)

의회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어려움 중 하나는 어떤 종류의 중재를 위한 수천 건의 부처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거구에서 우리에게 가하는 실질적인 처벌입니다.

(1)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조직의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조직의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고,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운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얼마 후, 저는 그러한 요구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군단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거지이거나, 우리를 마비시키려는 특수 파견대원들이었습니다.

(2) 이 시스템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호의를 구해야 하는 민감한 입장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개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의회에서 재임하는 동안 저는 어떤 장관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우리 문을 두드리는 수백 명 중 군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프거나 불운에 빠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진짜 직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부대는 소규모 조직으로, 대형을 갖추고 이동하며 끊임없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이는 특히 저에게 적의 모든 움직임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적의 계획을 적발하고 방어하며, 새로운 진지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일, 다시 말해 전국의 전장을 밤낮으로 끊임없이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단 교육 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오염된 정치적 범주로 점차 변질시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군단 정신이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회는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정말 필요한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 의 상태
## 군단 조직
## 1932-1933년

1932년 가을과 1933년 겨울, 군단병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3년 반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젊은이들은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쿠레슈티에 거주지를 마련한 지 거의 2년이 흘렀습니다.

내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Iasi에 온 Banea는 Totu, Cranganu, Tasca 및 Stelian Teodorescu의 도움을 받아 학생, 인쇄소, 우리 집 등과 관련된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증가하여 현재는 전투적 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클루지에서는 Banica Dobre가 조직을 향한 건강한 시작을 이루었고, 마찬가지로 Cernauti에서는 군단이 Lauric과 함께
토파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트라이안 브라일레아누 교수의 영적 지도 아래 삶은 순조롭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부코비나 전역에서 군단의 기류와
조직은 베테랑이자 저명한 민족주의자인 바실레 라신스키(Vasile lasinschi)의 유능한 지휘 아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Chisinau에서는 Tudorache와 Serghie Floreseu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데아 마레(Oradea Mare)에서는 로시프 보잔탄(losif Bozantan)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제단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은 대학에 입학할 무렵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니치포르 크라이니치 씨의 지휘 아래 드라고스 프로토포페스쿠 교수가 이끄는 소수의 지식인들의 협력으로, 매우 용감하고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민족주의 신문인 '달력(Calendarul)'이 부쿠레슈티에서 창간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루마니아 지식인 사회에 기독교를 따라 새롭고 넓은 길을 용감하게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노선. 특히 크레이닉 씨의 기사는 적진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한 실제 대포 사격과 같았습니다. 수도의 학생 운동 내에서는 군단병들이 최전선을 차지했습니다. 트라이안 코티가는 학생회장직을 맡았고, 군단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수도의 지식인 청년들 사이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우리 민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집단이 모여
새로운 리뷰 Axa("추축국")를 중심으로 Polichroniade, Vojen, Constant 등이 군단에 합류했고, Vasde Cristescu 교수, Vasfie Marin 교수 등 저명한 청년들도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비아디미르 두르니트레스쿠, 엔지니어 비르그드 이오네스쿠, 교수 라두 기르, 변호사 포포프, 화가 바사랍과 즐로테스쿠는 모두 재능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었으며, 군단 이념에 따라 작업했습니다.

건강하고 눈물처럼 순수하고 용감한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변형[참고: 여러 주]에 있는 마케도니아인 무리가

1913년 발칸 전쟁이 끝나고 루마니아에 합병된 남부 도브로자]는 경비대에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라에 새로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대학 청년들은 전원이 군단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청년들을 이끌었던 세 명의 저명한 문화인이 있었습니다.

Papanace, Caranica 및 Sterie Ciumeti.
처음 두 분과는 자주 상의했는데, 두 분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순수함과 진심 어린 큰 사랑과 용기로 뒷받침된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1931년 이후로 그들을 만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믿는다. 이 박해의 시기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폭행, 불의, 배신에 대해 논의했다. 군단병에 대한 새로운 고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칼.
학대받는 모든 군인들에 대해 우리가 겪은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스테리에 치우메티는 밤낮으로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개처럼 충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경비대의 수석 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경비대만 생각하고, 경비대를 걱정하고, 오직 경비대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경비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여러 지점에서 다른 귀중한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Pantelimon 박사, Ionescu Duminica 신부, Sibiu의 Augustin Bidian 박사; 학생들의 영적 고해사제이자 베테랑 전사인 Georgescu-Edincti 신부, Bacau의 Ciulei 대위, 역시 Ramnicul-Sarat에서 지휘를 맡은 베테랑인 Aristotel Gheorghiu; 브라다(Brada)에서는 이온 일리에스쿠(Ion Iliescu); 콘스탄타(Constanta), 세이탄(Seitan); Valcea의 Doara 신부와 Victor Barbulescu; Timisoara의 Vintan, Ghenadie 및 Duma 교수; 그리고 베테랑 군단병인 Nicolae Petrascu 교수, Horia Sima 교수, 변호사 Iosif Costea, Colhon 및 기타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에 지휘소를 두고 있습니다.

부쿠레슈티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참고: 다섯 개의 큰 구역은 각각 녹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의 색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녹색 구역과 파란색 구역에는 니콜라에 콘스탄티네스쿠와 도루 벨리마체라는 두 명의 훌륭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강인한 인품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물들이었고, 도루 벨리마체는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문학부; 뛰어난 경제적 배경을 가진 니콜라에 콘스탄티네스쿠는 상업 아카데미 학생이었습니다. 곧 두 사람 모두 군단의 신앙심과 용맹함이라는 위풍당당한 자질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또한 최초의 군단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1932년 12월 10일의 일정입니다.

A) 군단의 위계질서상 첫 번째 상위 계급인 군단 사령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희생, 노고, 영웅심, 신앙, 역량, 그리고 연공서열을 고려하여 다음 군단원들은 알파벳 순으로 계급이 승급됩니다. 의학 박사 과정생인 바네아 이온; 벨게아 이온; 엔지니어인 블라나루 이온;

Dumitrescu Ion, 신부; 이오네스쿠 안드레이; 실라기 빅터(변호사); Steleseu Mihail 의원; 토투 니콜라에, 학생; Traian Cotiga, 학생; 장인 타나세 안토히.

B) 1927년과 1928년에 서약을 하고 현재도 군단의 현역 대열에 남아 있는 모든 군단원은 이로써 군단 사령관 보좌관으로 진급합니다.

서명: Corneliu Zelea Codreanu.

나이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음으로 옮겨졌습니다.
군단 원로원과 군단 상급 위원회.

# 정치병사 2부와 3부 데릭 홀랜드

# 2부: 정치적 군인의 필요성

한 국가가 자유를 위해 열렬히 싸우려고 일어설 때 명예로운 것은, 대중을 진정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쇠퇴 (오스발트 슈펭글러)

전 세계를 오물, 부패, 반역의 바다로 뒤덮는 악의 세력에 맞선 싸움의 최전선에는 유럽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조직된 세력은 국민전선(National Front)이지만, 그들조차도 1970년대에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토론은 항상 여기저기서 행진을 해야 할지, 이번 선거에 출마해야 할지, 저번 선거에 출마해야 할지,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타이타닉호에서 누가 어떤 갑판 의자를 차지해야 할지 논쟁하는 것만큼이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은 더 알려지게 되었지만, 다른 방법도 이를 달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 에너지가 단 한 명의 이민자 유입을 막지 못했고, 단 하나의 공장 폐쇄도 막지 못했으며, 조국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강간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단순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이나 교리, 또는 활동이 아니라 – 비록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정치 구조에서 중요하지만 – 매일 민족주의적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우리 상황에 절망하는 주변 영국인들에게 등대와 영감의 역할을 할 새로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다른 불신당들은 우리 국민에게 정책과 교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하지만 어떤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일반 영국인에게 NF가 다른 세대와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문제의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자신이 설파하는 바를 실천하는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모범을 '정치적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치군인이란 무엇인가?

유럽 역사의 가장 높은 시기를 살펴보면 그 정신을 구현하거나 표현했던 사람들의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스파르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하고 엄격한 규율을 지켰던 민족으로, 주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사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은 다리우스 황제 휘하의 10만 명의 페르시아군에 맞섰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러한 엄청난 적대에도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전투 찬가인 카스토르의 노래를 부르며 불과 피의 도가니에서 전사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패배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백인대장이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영원한 로마, 즉 팍스 로마나에 헌신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질서 있는 제국 중 하나를 건설했고, 그 결과 우리는 소중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금욕주의와 기사도 정신에 대한 그의 헌신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럽을 아우르며 오늘날까지도 '기사도적 행동'은 고귀한 찬사로 여겨지는 기독교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권에서 모인 초국가적 공동체인 이 기사들은 교황 우르바노 2세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둘러 달려가 명예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맹렬한 무기를 휘두르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우리 세기에 정치적 군사력의 가장 뛰어난 사례는 아마도 코르넬리우 코드레아누의 천재성에 의해 창설되고 형성된 루마니아 철위대, 즉 군단 운동일 것입니다.

이 운동이 만들어낸 정신은 너무 강력하고 널리 퍼져서,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산주의 당국은 군단병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군단병들의 영적이고 고무적인 힘에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마르크스주의 동유럽의 고된 노동이 만지는 모든 것을 죽이는 가운데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만이 정치병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민족과 문화는 각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을 양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물라들의 편입니다. 그들의 용기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그들의 목표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의에 대한 신념은 너무나 강해서, 무장하지 않은 채 지뢰밭을 뚫고 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상은 너무나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닥칠 것을 잘 알면서도 적의 진영으로 트럭 폭탄을 몰고 들어갈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다. 그들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힘, 죽음에 대한 경멸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힘이 양키 전쟁을 주도했다.

레바논에서 기계를 꺼내는 동안 미군이 직업 보장, 임금 및 연금을 위해 싸우는 동안 혁명수비대의 반대자들은 이상,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란의 이란. 우리는 이상주의의 힘이 계산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인용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독자에게 한 가지 사실이 즉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전사,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이 측면, 즉 군대가 가장 중요한 측면, 아니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게 하는 공통분모는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은, 그들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이상에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그 이상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대의가 거부되었다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훌륭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그들이 마지막 필멸의 숨을 쉴 때만 꺼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적들은 종종 소유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불꽃, 그 불타는 정신을 우리 문화가 그 가치에 걸맞은 미래를 가지려면 다시 불태워야 합니다.
이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되면 우리의 모든 물질적 업적, 과학과 기술, 지적 위대함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이 의지가 없다면, 어떤 과학자도, 어떤 기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군인의 임무는 이 세기의 물질주의적 악몽이 잘못해서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삶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 삶의 의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를 위해 정치병은 영적 혁명, 즉 그의 삶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스며드는 내적 혁명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었을 때,

본질적으로 정치 병사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대의를 증진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에게는 삶 자체의 의미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예, 정의, 자존감, 정직, 신념, 겸손, 연민, 사랑.

그는 자신의 명예나 국민의 명예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가치 없는 자들에 의해 훼손될 때; 그는 그의 백성이 착취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는 마약이나 술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함으로써 자존감과 가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을 지탱하는 내면의 힘을 소유한다면
그러면 그는 무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크고 작은 모든 거래에서 정직할 것입니다. 민족주의 투사는 모범을 통해 이끄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에 대한 전적인, 의심할 여지 없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대의의 정의; 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까지 자신의 국민과 국가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는 칭찬이나

홍보. 그는 자신의 행동이 더 고상한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의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과

우리의 풍부한 문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 민족의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분의 엄청난 힘으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수하고 상쾌하며,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사람과 사물에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정치병은 영원한 이상에 의해 지탱되는 사람으로, 옳고 선하며 진실된 것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유럽 역사상 정치병 대대의 필요성이 이처럼 시급하고 절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엄청납니다. 은행, 공산주의자, 프리메이슨, 시오니스트, 자본가들.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하여 군대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부식성 사상을 국가의 혈류에 주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맞서 싸울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서유럽 모든 나라에 애국자들이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권력도, 영향력도, 언론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파르타인입니다.

소수. 그들은 페르시아인, 즉 다수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은 승산을 가늠해 본 후,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떼지어 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공산주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19세기 웨일스 민족주의자 엠리스 압 이완이 "불가피성은 현자의 높은 탑이 아니라, 소심한 자의 성소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옳았는가!

정치적 병사는 이상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암울한 현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 투쟁의 목표이며, 현실주의는 우리가 그 목표를 어떻게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지시하는 자질입니다. 양측의 무기를 저울질하는 정치적 병사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위협받거나 매수당하거나 고문당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희미한 기억, 빛나는 횃불일 뿐입니다. 정치적 병사의 임무는 이 횃불에 부채질하고 기름을 부어 그 횃불이 더욱 강렬하고 거세게 타올라 우리 국민과 조국을 휩쓸고 지나가는 맹렬한 불길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유, 사회 정의,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유럽. 정치적 군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열정, 동지애, 그리고 헌신을 북돋울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경계를 허무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고, 그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추스르고 가장 단단한 강철보다 더 강하게 투쟁에 복귀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훼손된 몸에서 매일같이 피가 흘러내리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만이 깊은 연민과 신성한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한때 지성과 위엄, 그리고 활기로 세상을 매료시켰던 아름다운 여인은 이제 시궁창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초강대국의 야만적인 무리들. 오직 정치병사들의 군대만이 맹렬한 공격의 폭풍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 한다. 그 군대는 작지만, 그 임무는 막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싸운다. 우리의 유산, 문화, 전통, 그리고 고귀한 가치가 다수의 비겁함 때문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군대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패배가 그 판결이라면

운명의 싸움이라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조상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그리고 용기 없는 자들, "가능성의 예술"을 설교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광신자"라고 비난한다면, 웨일즈가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 존 젠킨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 "나는 광신주의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할 것입니다. 첫째, 광신자가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열 명이라면, 다른 아홉 명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광신자가 행동의 대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광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일스가 살아남고 그 문화와 유산이 번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웨일스에 대한 맹렬하고 흔들림 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외 모든 것'
>
> 가족, 전망, 직업, 건강, 자유, 삶 자체를 포함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 웨일즈는 이런 종류의 광신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광신주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촉매입니다."

젠킨스가 웨일즈에 대해 말한 내용은 다른 영국 국가와 유럽의 그 친척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3부: 정치인의 길

"당신은 모든 장소와 모든 행동, 또는 외적인 일에서 내면적으로 자유롭고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부지런히 목표로 삼아야 하며, 모든 것이 당신 아래에 있고 당신이 모든 것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3]

1965년 스위스 로잔에서 Marcel de Corte는 다음 관찰: "나는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

3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 켐피스)

그런 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 주장이 저를 당황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전히 수단일 뿐인 수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기력하고, 쓸모없고, 존재하지도 않으며, 어쩌면 히스 로빈슨의 기묘한 장치처럼 보이지도 않는 수단을 말입니다. 수단은 순전히 정신 속에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단은 항상 목적과의 관계에서 고려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주장이며, 너무나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무심코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마르셀 드 코르테의 발언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수단과 목적은 실제 정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통일체입니다. 애국자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목적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설립된 기관이므로 당연히 수단도 다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나 대기업 드론이 테러 정권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민족주의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장 세력과 그의 대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며, 코드레아누는 이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운동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리즘 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폭력이나 암살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족주의 전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일반 시민을 총과 폭탄으로 무차별 살해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하며, 그들을 몰살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민족주의' 집단들이

IRA, 슈테른과 이르군 갱단, ETA, 라틴 아메리카의 반동적 군사 독재 정권 등, 이러한 접근 방식은 바로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정체성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과 문화를 사랑한다고 선언한다면, 민족주의 정치에서 두려움과 증오를 조장하는 방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진실이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깝다고 선언한다면, 우리가 수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바로 그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으로 거짓말하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혁명 이후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혁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권력이 없고 잃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이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연습하면 완벽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민족주의적 삶의 매일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걸었던 길은 소련과 미국의 노예 국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혁명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할 때 신중해야 한다거나 정신의 민첩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우리 존재의 모든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 육체적, 정신적, 영적 -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한계까지 자신을 내던지는 동시에, 동시에 우리 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압박에 맞서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라고 권하는 적들의 부패한 생각에 저항하려면 강인한 인격, 불굴의 의지, 그리고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타협만으로도 배신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되고, 금욕적이며, 피와 땀과 눈물의 풍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날, 혁명적 민족주의는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학문적 연습이 아니라 정치적 모집을 결정하는 필수 자격입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국가 혁명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방법들이 우리에게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를 깨닫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과거에는 전사 엘리트가 일상의 현실이었고, 화창한 날과 푸른 목초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기껏해야 낭만적인 추억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혹한 결론은 바로 이 팸플릿의 독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승리를 가능하게 할 정치 병사가 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생각에 낄낄거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럴 만한 자질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이시여, 운명이시여, 어떻게 부르시든, 당신과 저는 이 벅찬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고, 우리는 그들의 정신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정신의 토대 위에 우리는 켈트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고 이 나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어리석은 모든 자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전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누구에게

돌아서? 맥주 한 잔이나 풀 한 봉지에 머리를 처박고 있는 놈들? 공상과학 영화나 헤로인에서 '현실'을 찾는 놈들? 큰 소리로 떠드는 놈들
그리고 길고, '신들의 황혼'을 위협하면서도 자금 몇 파운드나 회의 몇 시간도 아깝게 여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짧은 등과 옆구리, 싸구려 맥주, 그리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새 모자가 민족주의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거리의 얼간이들? "영국의 푸르고 쾌적한 목초지"에는 헌신적이지만, 이웃과 친구들이 그에게 부여하는 "존경심"을 위협한다면 자신의 "애국심"을 희생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지 않은, 플라스틱 애국자, 부르주아적 웅변가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의무가 그를 부른다. 거부하는 자들은 그저 겁쟁이일 뿐이다. 정치 병사는 적을 존경할 수 있지만, 반역자와 탈주자는 경멸할 뿐이다. 그리고 당신 자녀들의 장자권이 그들에게서 빼앗겨

적들이여, 당신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다면 어떻게 국민혁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정치병은 두 명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차이점은 우리가 각자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닌 개인이기 때문에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군대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족장만 있고 인디언이 없는 것은 모든 인디언만 있고 족장이 없는 것만큼이나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도자로, 다른 일부는 전사로 부상하겠지만, 모두 우리의 국가적 사명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정치병의 탄생으로 절정에 달하는 발전의 길,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등에 얹힌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짐을 지고, 투쟁을 통해 우리는 천천히, 아니 정말 천천히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로 신체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탁월함이 휘발유 한 갤런을 마실 때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력과 엄청난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병이 되는 것은 활동가들의 문제이지, 안락의자에 앉아 독재자나 자칭 운명의 사나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전의 길은 단순하고 논리적이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만 성취하려고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야심찬 목표를 시도할 수 있는 기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에게 결코 솔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 진지하게 생각해 본 후,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보세요. 과도한 비판이나 자만심에 빠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장점 하나와, 없어도 괜찮을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규모의 싸움입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거나 실패에 낙담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자기 수양과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의지를 키워줍니다. 찰스 아틀라스가 자신의 웨이트가 신체적으로 당신에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당신에게 영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슬픔을 이해해야만 행복을 이해할 수 있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해야만 성공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억압이 폭력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때, 당신은 투쟁하는 동지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들 역시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밤마다 TV를 보시나요? 그렇다면 TV 시청 시간을 줄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든 드라마든, 불필요하게 적들의 선전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욱 건설적으로, 그리고 국가적 투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십시오.
정치 관련 서적이나 잡지를 읽어보세요. 시골이나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선물을 만끽하세요. 전단지나 신문을 좀 더 팔아보세요. 친구 몇 명과 집에서 토론 모임을 열거나 지역 행사에 참여해 보세요.

세입자 협회, 지구의 벗 등과 같은 지역 사회 단체에 가입하여 지역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밤에 외출할 때 4, 5, 6파인트 또는 그 이상 마시나요? 2~3파인트로 줄이세요. 더 많이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를 위해 쓸 돈은 많지만, 건강은 훨씬 좋아질 거야. 게다가 십자군은 맥주 똥으로 유명하지 않았잖아!

담배를 많이 피우시나요? 그렇다면, 담배를 줄이세요. 아니면 아예 끊는 게 더 좋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대기업을 계속 운영할 뿐입니다. 재빨리 움직여야 할 때가 올 것이고, 쌕쌕거리는 공룡처럼 보이려고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축구나 파티에 가는 것을 NF 행사 참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물론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에서 잠시 벗어날 시간은 필요하지만, 만약 NF가 회원들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방해 요소들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독서 습관이 없다면, 습관을 들이고 항상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세요. 지식은 힘이며, 더 많이 알수록 시스템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민족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 전단지 제작 방법을 교육받는 파티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실크스크린으로 포스터와 티셔츠를 인쇄하는 방법도 배우고, 강사가 혁명적 이상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해 주는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이를 통해 설득을 통해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것들과 그 외 많은 것들을 당에서 배울 수 있지만, 개인적인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콘월 혈통이라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운전, 타이핑,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법을 배우세요. 전자, 기계, 속기, 저널리즘을 배우기 위해 야간 강좌에 참여하거나, 역도나 무술 같은 신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만족감을 주고 대의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의회의 소름 끼치는 자들이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일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병사라면 다음과 같은 미덕을 계발해야 합니다.

인내심: 정치병으로의 전환은 시간과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주일이나 몇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한다면 평생을 쏟아야 할 작업입니다.

침착함: 국가의 탄압이 심화됨에 따라 당황한 아마추어가 아니라 냉정하고 침착하며 냉정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기 훈련: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지와 적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힘을 소유하세요.

유머 감각: 인생은 장미빛이 아니지만, 길고 지루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은

둘 다 조금씩만요. 자신과 상황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적을 괴롭힐 유령 전사로 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웃음의 힘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 무장세력 30명의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세였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많은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무장 세력은 신과 인간 앞에 무죄한 채 최고의 민족주의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과 사법부는 이 젊은이들이

피고석에 앉아, 무표정하고 진지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동지들이 재판 과정을 무시한 채 카드놀이를 하고 서로 웃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신경도 안 썼고, 왜 신경 써야 합니까? 4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슈퍼그래스로 전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기 석방 제안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한 조각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했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죽음 그 자체도 이 힘에 아무런 힘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정복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이 힘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켈트족은 이렇게 썼습니다.

힘을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나라를 위해 싸우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은 승리이며 영혼의 해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윌리엄 버드와 토머스 탈루스의 영국을 위해, 콘월의 거친 아름다움과 레이크 디스트릭트의 고요함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동지의 땅, 웨일스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영혼이 담긴 문학과 음악뿐만 아니라 오웨인 글린드르의 영웅적인 정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고원과 섬들, 발라드와 시인들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역설의 땅, 비극과 희극, 유머와 급한 성격의 땅, 그리고 G.K. 체스터튼이 "더블린과 벨파스트의 거짓말은 웨스트민스터의 진부한 말보다 더 진실하다"라고 말한 순수함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은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국가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혁명적 전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체제의 더러운 부츠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겁쟁이가 될 것인가?

겁쟁이는 부끄러움에 머리를 숙이게 두세요.

전사에게 그의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오다!

# 국가사회주의 생물학적 세계관 Povl

H. Riis-Knudsen

어떤 순간에도 정설, 즉 모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여겨지는 사상 체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저것 말하는 것이 엄밀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지배적인 정통성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으로 침묵당하게 된다. 진정으로 유행에 뒤떨어진 의견은 대중 언론이나 고급 정기간행물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조지 오웰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당신은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은 종종 그러한 대화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 비참한 상황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적들이 대중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인간적 악의의 정점이라는 국가사회주의의 선전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7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은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1945년 "인본주의의 승리" 이후 세상을 황폐화시켜 온 모든 악의와 잔혹함을 텔레비전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해 왔으며,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삶과 그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덜 편견적인 태도를 갖는 매우 고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당신은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닌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은 종종 그러한 대화가 완전히 불가능하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 비참한 상황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적들이 대중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인간적 악의 정점이라는 국가사회주의의 선전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7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은 더 이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1945년 "인본주의의 승리" 이후 세상을 황폐화시켜 온 모든 악의와 잔혹함을 텔레비전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는 매우 격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삶과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편견이 덜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젊은이들이 국가사회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당신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적인 가치와 자연적인 윤리 규범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소외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받은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 중립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은 현실 세계, 그 끊임없는 생물학적 법칙,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적, 사회적 의무와 완전히 단절된 정신적 공허 속에 살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적, 철학적 세계에서 국가사회주의 사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로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오늘날의 무심한 상대주의와는 반대로, 모든 사상이 – 적어도 원칙적으로 – 동등하게 받아들여지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반면, 국가 사회주의는 절대적 진실을 찾고 이 진실을 인간 사회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안락의자 철학자나 동양 신비주의의 모호한 헛소리와는 달리, 국가 사회주의는 상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실에 의해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의 차이가 결정되는 현실 세계에서 주장을 모색하며, 희망적 사고나 이론적 몽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사회주의는 모든 지배 이념의 개념과 도덕 규범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메우기 어려운 이해의 간극으로 이어진다. 국가사회주의자들과 현 질서의 사상에 의해 사고방식이 결정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된 기준틀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주의는 단순히 전체 지배 세계 질서의 철학적 토대 자체에 맞선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현 질서와 생물학적 세계관의 가치 체계 사이의 이러한 충돌이 함의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전 페이지에서 이미 명확히 밝혔듯이,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 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다소 물질주의적인 성격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지 모호하고 무의미한 정치 프로그램을 짜맞춰 의회 정강에 필요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은 사회 구성원의 희생을 대가로 케이크 한 조각을 최대한 자신들, 그리고 어쩌면 당원들에게 전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세계관이자 완전한 삶의 철학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모든 측면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마치 모든 분야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삶의 모든 측면과 그 신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동일한 통합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세계관은 그 추종자들의 종교, 윤리, 정치, 경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인 삶을 구성하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국가사회주의가 존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인생 철학은 아닙니다. 다른 예로는 모든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삶의 모든 상황에서 행동과 태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종교적 교리와 현실 사이의 급속도로 벌어지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타협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러한 간극은 구세계 기독교 국가들의 세속화를 꾸준히 심화시켰고,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의 서구화된 정부들은 엄격한 종교 사회 구조를 버리고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 유물론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반대로 나아가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급진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의 한 예가 호메이니 시대의 이란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세계와 그 너머에는 쿠란의 문자에 기반한 중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근본주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아랍인들에게서 빼앗은 영토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정통적인 집단들은 탈무드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탈무드 율법은 고대 유목 사회의 산물이며 현대 산업 국가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안식일과 쉬미타년과 같은 엄격한 종교적 규칙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형적인 셈족적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땅은 묵혀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빈곤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라마단이 거의 영구적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를 쓰려는 모든 시도는 이러한 세계관이 서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지침으로 삼기에 전혀 부적합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종자들이 이 새로운 삶을 원하는 것을 막을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성공적인 기생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종교들이 현실이 아닌 맹목적인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이자 모든 사고의 초점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폴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려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고 기독교 교리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내부 의견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북미에서도 기독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누리고 있으며, 비록 쇠퇴하고 있지만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소위 기독교적 가치를 정치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하려는 기독교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자체는 이러한 정당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적이 있었다면, 그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기독교는 북부 사람들에게 항상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기독교 해석은 종종 매우 비기독교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주민의 약 95%가 루터교 국교회 신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2%에 불과하고,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힘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또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세계관을 대표하는 삶의 철학인 반면, 우리 시대의 다른 모든 정치 사상은 주로 사소한 행정 및 경제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삶 전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인간의 영적 욕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적 소속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강조하며 종교와 정치는 서로 무관하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종교가 정치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자유주의 또는 보수 정당의 구성원은 기독교인, 유대교인, 무슬림, 무신론자, 불교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정치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국가 기구 내의 상당히 명확하게 정의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결하지만, 완전히 다른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분열은 종교의 본질과는 실제로 양립할 수 없지만, 종교 공동체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다소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진정한 삶의 철학은 삶을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부분으로 원자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그 근본 철학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추종자들은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외래적 요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그 자체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을 제공합니다.

종교가 오로지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것! 따라서 신의 존재, 원죄 없이 잉태되심, 부활, 재림 등은 모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신을 성경의 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리고 반대 증거가 있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증거 없이 믿지 않는다면, 마치 의심하는 도마처럼 의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 중 가장 총명했던 도마가 그 사람이…

그의 앞에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있었다. 이러한 무지에 대한 자만심과는 반대로,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사회주의는 모두 과학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서적들로 가득 찬 책상 뒤에서 발명되었지만, 현실이나 과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종교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두 발로 걷고 깃털이 없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완전히 비과학적인 믿음과,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이 개인의 발달을 결정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생산 조건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똑같이 터무니없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이다. 실제로 인간이 환경을 형성하고 생산 조건을 포함한 사회 질서를 확립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지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 모든 다른 철학들과는 달리, 국가사회주의는 결코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존재한 이래로 존재해 왔고 최초의 원시 유기체가 생겨난 이래 모든 생명을 지배해 온 영원한 자연법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유명한 국가사회주의 철학자 고(故) 사비트리 데비가 그녀의 저서 『번개와 태양』에서 아름답고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4]

>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독일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아리아 인종과 인류 자체, 그리고 모든 시대를 초월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신비롭고 확실한 지혜를 표현합니다.
>
> 자연은 살아있고 창조합니다. 원시림과 깊은 바다, 그리고 우주의 어두운 영역에 있는 구체들의 비인격적인 지혜;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그 신성한 지혜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 세계적인 범위의 실질적인 재생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사회주의는 아돌프 히틀러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의 근본 법칙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4 사비트리 데비, 번개와 태양 (베벨스부르크 기록 보관소 에디션), 168쪽

자연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자연은 모든 다양성을 지닌 창조물에 대한 무한한 사랑, 자연의 지혜에 대한 깊고 무조건적인 존중, 그리고 이 지혜에서 자라난 생명을 보존하려는 열렬한 의지에 기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러한 근본적인 법칙에 따라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사실상 오늘날 기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물리적, 생물학적 법칙을 인간 삶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영역에 적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사회주의는 다른 어떤 세계관과도 달리 진정으로 과학적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현실을 선입견에 맞추려 하지 않고, 이론을 현실에 맞추려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학적 이정표는 국가사회주의 공동체의 실제 삶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법칙 중 일부가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고 바랄 수도 있지만, 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법은 유엔 총회, 미국 의회 또는 다른 어떤 국회의 표결을 통해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개별적인 발전 가능성을 지배하고 제한하는 유전적 요소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희망적 사고, 즉 희망적 사고로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한 꿈 위에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서양의 적들이 건설한 사회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국가사회주의를 "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경제적, 도덕적 재앙 직전의 세상, 인플레이션, 실업, 범죄, 무분별한 폭력, 마약 남용, 오염, 음란물, 부패, 기아, 그리고 생태적 재앙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단 16일 동안만 평화를 누렸을 뿐인데도, 같은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량한 세상에 대해

## 지구상의 모든 고등 생명체를 파괴할 핵전쟁의 무서운 위협이 맴돌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은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가장 극심한 아리아 지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건전하고 자연적인 가치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무의미한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물질적 풍요로 달래지며, 경제적 혼란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의 온갖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복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이상과 열정이 전혀 없으며 미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리아인들은 이 세상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자신의 종족과 문화를 보존하는 것보다 순간의 사치를 더 선호합니다. 그는 이 오물통 속에서 최대한 편안한 삶을 확보하려 애쓰며, 그의 유일한 희망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자신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상의 땅이 외계인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점령당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외계인은 백인의 종말이 우리가 아는 모든 문명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들이 1945년에 세상에 약속했던 황금기입니다. 그들이 절대 권력을 누린 70년 동안 이룩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불길한 상황에 처한 것은 오로지 인간이 자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당신은 현 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필연적으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이 체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 사회의 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상적인 투쟁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자연이 살아가고 창조하는 변함없는 지혜"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상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만 생명은 이 지구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다음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 전체의 일부이며, 다른 모든 생명체와 똑같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즉 인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 즉 외형뿐 아니라 정신적·지적 특성 측면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불평등하게 창조된 개체이며, 그들의 삶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인간이 인식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단어에 적용하는 의미의 정의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법적,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또 조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 앞에서의 평등한 보호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직된 사회에서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안정의 일부입니다. 사실, 인간이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데 참여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안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물학적 정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평등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불치병에 걸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백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극도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스물다섯 살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정신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노년에 이르는 사람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학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이 우리의 정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내세에 일종의 신적 정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현실 도피를 위한 터무니없는 시도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사회주의의 적들은 종종 국가사회주의의 근간인 인간 본성에 대한 생물학적 개념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반대자들의 소위 "윤리"가 부도덕하다고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연에 기반하지 않은 규범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100% 틀렸습니다!

물론 이는 기독교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부자연스러운 이원론은 지배적인 "도덕" 규범의 근간이며, 자유주의/인본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꼬리표 아래 위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인간은 신성한 영혼을 가짐으로써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매우 특별한 위치를 누립니다. 이 영혼은 보편적이며 비생물학적입니다. 인종이나 개인마다 다르지 않으며, 개인의 지능이나 다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특성에 의존하지 않고, 유전적이거나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혼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눈에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을 믿는 한 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인간을 생물학적 요인의 산물로 말하는 것은 "비하"입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인간의 삶 전체는 신성한 영혼(영)과 "물질", 즉 자연,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악을 상징하는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육체는 구름 속의 미지의 낙원(혹은 아마겟돈 이후의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패배해야 합니다. 지상 생활은 다가올 삶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 지옥에서든,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본성과 얼마나 성공적으로 싸워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상 생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눈물의 계곡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삶과 자연에 대한 뚜렷한 경멸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도전에 맞서지 못하고 그저 식물처럼 살아가며 "나중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믿음을 가진 패배자와 몽상가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범죄적이고 쓸모없는 존재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바보를 근면하고 창의적인 시민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처녀를 어머니보다, 수도사를 아버지보다,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강하고 승리한 자보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산 자보다 우위에 두는 규범과 가치 체계를 대표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모든 즐거움을 경멸하고, 자기 고문과 자기 비하를 인간이 육신과 싸우고 자신이 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그릇으로 태어났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미화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기독교는
삶에 대한 왜곡되고 인간 혐오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는 비생물학적 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 면역력을 파괴하는 일종의 영적 에이즈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오염시키는 질병이며,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수단.

기독교인과는 달리, 국가사회주의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본성의 범위 안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개성을 펼쳐야 합니다. 그는

중동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연 속에 태어난 "죄"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평생을 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삶의 사명에 자신감을 가진, 자랑스럽고 조화로운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원죄"와 같은 인간 혐오적 관념의 두려움과 낙담에 휩싸인 산물들이 아닙니다. 원죄는 인간에게 삶에 단 하나의 희망, 즉 "신"이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 것이라는 희망만을 남깁니다.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다원적 세계관의 수줍고 절망적인 희생자들도 원치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믿지만, 우리의 신은 유대-기독교의 야훼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국가사회주의에는 오직 하나의 참된 신, 자연 곳곳에 드러난 불가사의한 창조의 힘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연법칙의 지혜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표함으로써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신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며, 자연의 윤리 외에는 다른 윤리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하나의 대죄, 즉 이 윤리에 반기를 드는 것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주의가 아니라 범신론, 즉 신성이 자연을 통해서만 표현되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범신론은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 세기 독일 관념주의와 낭만주의의 토대 중 하나입니다. 범신론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화학 성분의 총합이 아닌 생명의 원리에 있다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는 삶을 최대 소비와 자기만족을 위한 물질주의적 투쟁 이상으로 봅니다. 삶은 우리가 속한 신성한 원리를 보호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미신에 기반한 서사를 정립할 필요는 없으며, 분명히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한 가지 특별한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추상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뇌입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인간은 다른 존재들이 겪어야 하는 자연의 잔혹함을 어느 정도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자연법칙의 근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좋든 나쁘든 지구를 탐사하고 그 풍요로움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자연법을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그러한 위법 행위의 결과를 곧 느끼게 되겠지만,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보복을 느끼지 않고도 자연법을 위반한 후에도 상당 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자연법은 거침없이 밀려올 것이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극도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독특한 뇌는 다른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정, 즉 미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에게 영적 안정감을 주고 물질적 풍요를 향한 투쟁 너머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무언가에 대한 절실한 욕구를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근간이 되는 욕구이지만, 종교와는 달리 국가사회주의는 이러한 욕구를 지상에서 충족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나 감정은 고립된 비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라 생명체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인간의 신체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정신" 또한 유전에 관한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 전체가 자연법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 생활을 확립하여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구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적은 국가사회주의의 정신적 세계가 강압과 조종의 세계라고 종종 주장합니다. 즉, 개인은 단지 생각 없는 대중의 일부가 되기 위해 자유와 개성을 박탈당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국민을 거대한 회색 덩어리로 여기고, 각 개인 간의 차이는 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화"하기 위해 "교정"해야 하는 우연한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만 설명합니다. 반면 국가사회주의는 개인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독특하며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개인적 재능을 사회라는 틀 안에서 결합하는 것이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국민의 정신적 자원을 모두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재성과 진보가 대중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항상 뛰어난 개인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직된 사회에서 개인에게 가능한 한 자유롭게 자신을 찾고 발전시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만 인간이 더욱 높은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70년간의 민주주의 이후 세계가 직면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타고난 발전 가능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평등하게 만들려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는 필연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 즉 지능이나 다른 면에서 평균보다 뛰어난 모든 개인을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산물이며, 지구상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트를 육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에 대한 동등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국가를 심연으로 이끌 뿐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의회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투표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의견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러한 종류의 토론장은 사회의 가장 타락한 계층에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기업들이 기업 내 최고 직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반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정치 사기꾼이라면 누구든 자국의 총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적절한 인맥만 있으면 되고, 지나치게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이익 집단의 지지 없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민주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유권자에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결코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ᛉ

개성과 인간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부정은 "유전적 위생"이라는 개념마저 완전히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위생이란 그저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전적 위생"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 인간은 말, 소, 개, 비둘기, 앵무새 등을 번식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고의 유전적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종을 번식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기꺼이 인간의 완전한 생물학적 퇴화에 기여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체군은 생물학적 선택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사회의 정상에 오르는 반면, 현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인구의 약자에게도 공간과 보호가 주어지는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완화해 온, 철저하고도 가차 없는 자연법칙 중 하나입니다. 약자들 역시 발전된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눈을 감는다면, 우리 역시 재앙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약자를 보호할 만큼 강력한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품질을 개체군 내에서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생물학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가장 약한 개인이 가장 먼저 멸망하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는 – 흔히 주장하듯이 – 약자를 버려두고 운명에 맡겨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약자가 확실한 파멸에 맞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그 약점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며, 이는 유전적 위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는 사람들에게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인간이 이 분야에서 본능을 회복하여 생물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발전의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질병과 약점이 유전을 통해 통제 불능으로 축적되고 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로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유전적으로 인구를 파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입니다!

동시에 사회는 외부 영향으로 인한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환경과 직장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적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이윤 추구와 탐욕스러운 물질주의가 음식과 옷에 병원성 인공 첨가물을, 가정과 공공건물에 건강에 해로운 합성 물질을, 그리고 토양, 공기, 물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될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불치병에 걸린 사회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완전히 왜곡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전적 위생과 전반적인 오염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인간의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생태적 균형이라는 동일한 대의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건강한 환경 없이는

가장 우수한 유전자는 파괴될 것이고, 이 유전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이들이 조화롭게 자라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도 필요합니다. 현 질서의 또 다른 악은 이러한 가정이 흔히 있는 비생물학적 사고방식과 여성 해방론자들의 헛소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종이 다르듯이 성별도 다르며,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은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의 결과가 아니라 생물학적 역할의 결과입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은 생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임무에 적합하며, 새로운 세대의 어머니로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 조립 라인에서 일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은 범죄입니다!

여성은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역할 안에서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가족은 무너지고,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국가 교육을 받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이상도 배우지 못하고, 텔레비전, 저질 음악, 심지어는 문학 작품에서 우상을 찾습니다. 패스트푸드만 먹고 살면서 최악의 상업적 물질주의에 희생됩니다. 즉, 여성이 어떤 종류의 "피임" 장치를 사용하거나,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살해하는 등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아이를 돌보고 여성이 직장에 나가는 것이 똑같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렇게 자연스러웠다면 남성도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여성이 남성으로서 덜 안정적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항상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정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계 프랑스인 페미니스트 엘리자베스 바댕테르가 자신의 저서(O. Jacob (!) 출판, 1986년 파리,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거의 모든 서유럽 언어로 번역됨)에서 자궁과 난소를 다른 부위로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남성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니! 그런 책이 독자를 만나는 사회는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회다!

인간이 고립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이며, 그의 사회적 본능은 핵가족을 넘어섭니다. 인간은 원시적 존재의 위험에 더 잘 저항하기 위해 초기부터 집단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종으로서 생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직된 사회에서의 삶은 인간 존재의 조건이며, 조직하려는 충동은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조직된 사회가 없었다면 모든 개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 과학, 교육, 또는 어떤 의료 서비스에도 잉여가 없었을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조직은 단순히 문화와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문화가 항상 조직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아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사회에서는 개인이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신의 지능과 재능을 오용하여 이러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게 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 내에서 필요한 충성심은 물질적인 고려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 복지 사무실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운명을 가진 공동체, 즉 공동의 배경, 공동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공동의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영토를 차지하고 지켜낸 조상을 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언어적, 문화적, 생물학적 특성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 민족의 재능, 관념, 이상, 그리고 가치관, 즉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 부를 수 있는 것과 밀접하게 부합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다른 재능, 관념, 이상,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은 우리 문화만큼 "훌륭"할지는 몰라도, 우리 문화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질적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질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다가올 보편적인 "세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한 민족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은 "문화"는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더 이상 자신의 문화 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어 우연히 접하게 된 외국 문화 요소 를 수입하고 통합한 모든 문명이 필연적인 멸망 직전에 서 있었음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종, 종교, 철학이 마구 뒤섞인 사회는 오늘날 흔히 주장하듯이 결코 정신적, 문화적 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잡탕입니다.

국가의 임박한 붕괴와 모든 규범과 가치의 완전한 해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후입니다. 그러한 사회는 진정한 공동체의 퇴보적인 패러디이며,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같은 땅에 사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충성심이 국가 자체와 그 역사에 기반을 두지 않는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 대한 훨씬 더 강력한 – 영적인 – 충성심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응집성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물학적 인종 혼합입니다. 이는 문화 혼합과 함께, 혹은 심지어 그 전제 조건으로 항상 나타나곤 했습니다. 문화 자체의 붕괴는 언제든 멈출 수 있으며, 인종적 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한 민족은 다시금 고유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혼합은 돌이킬 수 없으며,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고 재앙적입니다. 자연은 항상 더 큰 인종적 다양성을 향해 발전해 왔고, 그 결과 인종은 결국 하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인종 혼합을 통해 우리는 인종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다양한 타고난 재능이 평준화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인종이 특정 방향으로 발전하여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질에 기반한 문화를 창조했다면, 다른 인종과의 혼합은 몇 세대가 지나면서 사생아는 조상이 창조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인종 혼합의 결과로 우리가 갖게 된 사회의 종류.

라틴 아메리카, 인도, 이집트는 모두 훌륭한 사례이며, 헬라스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로마 문명도 주로 북유럽계 민족으로 구성된 소수 이주민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 고도로 발달한 소수 민족은 처음에는 기존 다수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억압했지만, 나중에는 정복당한 민족의 수적 우위에 서서히 굴복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가장 귀중한 피를 흘린 채 약화되고, 아시아의 거짓 인도주의 사상에 의해 전복된 그들은 정복당한 민족에게서 점차 더 많은 시민권을 부여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에서 새로운 노예와 노동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에 통합되어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북유럽 민족의 붕괴가 헬라스의 자랑스러운 국가를 오늘날의 그리스로, 로마를 이탈리아로, 다시 말해 문명을 혼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고대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만, 그 문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그토록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듯합니다. 사실 오늘날 "로마인"으로 가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과 인종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남쪽 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종 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곧 수많은 금기 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종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얄미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를 연구 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심지어 의사나 소위 인류학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원하는 것조차 당신의 경력에 해가 되는데, 왜 신경 써야 할까요?

따라서 "순수한" 백인 인종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리아인"은 순전히 언어적 용어일 뿐이라는 등의 주장이 항상 경멸적인 비웃음과 함께 제기되는데, 이는 모두 인종 과학이 헛소리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틀렸습니다! 다양한 유럽 인종이 혼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같은 주요 인종, 소위 백인 인종 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종들의 혼합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바를 정의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 백인 인종을 아리아 인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결코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혼합이 유럽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정반대였을 것이며, 추가적인 혼혈을 통해 분열 과정을 지속할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또한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인종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비생물학적 헛소리입니다.
근친 교배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닮은 가까운 친척 개체들 간의 교배만을 의미합니다. 근친 교배를 통해 우리는 좋은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나쁜 유전적 요소까지 다양한 유전적 요인을 축적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손이 이러한 유전자를 합칠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불행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자들이 축적되지 않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유전자가 축적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기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른 긍정적인 특성으로 보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친 교배는 아주 작은 섬이나 소위 "왕족" 또는 "귀족" 가문처럼 매우 작은 개체군에서만 위험합니다. 수백만 개체가 있는 개체군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친 교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유전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근친 교배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불화한 개체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동물계와 식물계에서 서로 다른 인종을 교배하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다고 반박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과학자들이 교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특성을 미리 정의한 엄격하게 통제된 교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배를 통해 원하는 특성 중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선택하여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부모를 선택합니다. 자손을 얻은 후에는 원하는 특성을 가장 많이 가진 개체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들은 추가 번식에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불가피한 폐기물로 도축됩니다. 이 개체들을 계속 번식시키면 원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연한 번식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번식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개와 번식한다면 자손을 죽이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외래 식물과 동물의 영토 유입을 막으려는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 식물과 동물은 자연 질서를 교란하고 기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소위 "킬러벌"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높은 수확량을 가진 강건한 종을 만들려는 시도의 인위적인 산물입니다. 그 결과, 매우 다른 수분 패턴을 가진 공격적인 벌떼가 생겨났습니다. 우연히 이 중 일부가 실험실에서 탈출했고, 오늘날 이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미국 남부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때문에 상업적 양봉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꿀벌을 대체하면서 과수원의 상업적 수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는 필요한 통제가 실패할 경우 인종 혼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게다가 인류의 광범위한 혼합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 교배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인류의 교배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것은 동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입니다. 인간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키, 육질, 우유 생산 능력처럼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라, 성격, 지능, 창의력, 내면의 조화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종을 교배할 때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제한적인 인종 혼합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아리아 세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래 인종적 요소가 어떤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백인 종족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 전혀 알려주지 못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분열 경향은 사람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문화적, 역사적, 생물학적 배경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같은 정신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진정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에서만 개인은 필요한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개인보다 더 강하고 개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존재할 무언가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운명의 국가적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항상 갈망해 온 영원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의 유일한 몫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국가 공동체 밖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면, 이 공동체는 의미를 잃고 결국에는 주소만 공유하는 결혼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민족주의 관점이다.
그러나 집단 내 충성심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시민만이 사회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역시 시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성심은 정의로운 사회적 조건과 경제 체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 체제에서는 아무도 착취당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삶과 행복을 보장하며, 각 개인에게 국민의 영원한 삶에 대한 몫을 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주의 관점이다.
사회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반대로, 명확하게 정의된 공동체가 없는 사회주의는 의미가 없다.

오늘날 국가사회주의적 태도가 전쟁과 다른 민족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됩니다.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민족의 문화적, 생물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려면 인종적, 문화적 차이의 존재와 그 바람직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인종적 차이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다른 민족의 고유한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문명은 오직 하나 뿐이라는 기독교, 이슬람, 마르크스주의가 공유하는 비참한 생각은 지난 세기의 유럽 식민 제국과 오늘날의 현대 산업 세계의 척박한 물질주의적 생활 방식을 순진한 제3세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짝임은 보이지만 비용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파멸이듯 그들도 파멸할 것입니다! 소비 사회는 시장과 소비자만 바라보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획일성입니다. 획일화된 고객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더 간단하고 저렴해져 판매량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민족적 특성과 다양한 문화적 패턴, 그리고 언어는 여기서 골칫거리이자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되며, 따라서 싸워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체인점에게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소비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괴합니다.

국가사회주의에 있어 차이는 자연 질서의 일부이며, 우리는 인종, 민족, 그리고 개인 간의 모든 차이점을 포함하여 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흑인 부족이 우리 종교를 따르거나, 우리 음식을 먹거나, 우리 법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물론, 서로에게 이롭다면 기꺼이 협력해야겠지만,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앉아서 우리 민족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독립 국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사회주의 세계 질서만이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고 임박한 재앙으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가 국가사회주의를 미래의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간은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법을 계속해서 위반해 온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주의 종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지구와 그 안의 인간은 거대한 기계의 극히 작고 완전히 없어도 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지난 1만 년 동안의 다양한 문명은 무한하고 시간을 초월한 우주에서 미미한 에피소드, 즉 잘못된 실험으로 끝날 것입니다. 완전한 핵전쟁 이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여전히 생물학적 생명의 기반이 남아 있을 것이며, 더 높은 차원의 생명체를 향한 발전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 전쟁으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아주 먼 태양계의 다른 행성 어딘가, 어쩌면 수십조 광년이나 떨어진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연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과 지구가 없어도 말입니다. 생명체가 없더라도 우주에는 여전히 자연 질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법칙도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인간이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마땅히 닥쳐올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무엇도 이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이성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하시지 않겠습니까 ?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백인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만든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으신가요?

# 국가 사회주의 좌익 운동 Povl H. Riis-Knudsen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극우파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으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세계 국가사회주의자연합은 "우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공식 정책이 되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우익"과 "좌익"이라는 틀에 맞지 않으며, 대신 이러한 구분을 초월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지만, 현재 투쟁의 맥락에서 정치적 진영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재고하고 "우익"과 "좌익"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오늘날의 정치 현장에 대한 적용에 관해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지칭하는 "우파"와 "좌파"라는 단어는 혁명 이전 프랑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정부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오른쪽에 앉았고, 더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따라서 반동파를 지칭하는 "우파"와 혁명파를 지칭하는 "좌파"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이 용어들은 이후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동적"이라는 단어나 "혁명적"이라는 단어는 문제의 특정 견해에 대해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둘 다 상대적이며, 주어진 역사적 맥락 안에서만 그 고유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 민족자유주의자들처럼 과거의 혁명가들은 오늘날 그다지 혁명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반동가들이 200년 전이었다면 매우 혁명적이라고 여겨졌을 것처럼 말입니다. 1917년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장악했을 때, 그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전복하려는 혁명가로서 그랬지만, 오늘날 그들은 새로운 혁명적 도전에 직면한 반동적 기득권을 대표합니다.

우리 시대의 전통적인 좌파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심지어 "좌익"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혁명가는 좌익입니다. 다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쟁이 너무 적어서

용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우익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회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의 소위 기독교 문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반동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익은 전통적인 애국적 가치를 옹호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자 훌륭한 시민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군주(만약 군주가 있다면)에게 충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벌일 의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 나라들의 정부 체제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더라도, 그들의 국내 질서를 위협한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백인 국가와 핵전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인 자유 기업에 기반한 경제를 지지하지만, 정치의 자유주의적 추세와 이민, 인종 통합에는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익숙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좌익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 체제나 그 어떤 부분도 보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을 오늘날의 비참함으로 이끈 체제의 토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 국가들 간의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수많은 소규모 전쟁, 핵 재무장, 환경 오염, 실업, 미래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은 젊은이들의 완전한 환멸, 마약 남용, 음란물, 그리고 오늘날 드러나는 모든 형태의 완전한 타락을 초래한 어떤 기관도 지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질서 전체의 완전한 전복을 원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구질서와 기본적으로 평등주의 철학을 공유하고 물질적 재화의 재분배만을 목표로 하는 유물론적 운동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반면, 국가 사회주의는 이상주의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연의 법칙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 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좌익적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마르크스주의적이지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에 비하면 마르크스주의는 기독교가 만들어내고 자유민주주의가 옹호하는 사이비 혁명 사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면 왜 모든 부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르크스주의는 우리가 파괴하고자 하는 낡은 질서의 일부일 뿐입니다.

국가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좌익 운동이라면,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우익적 태도에 부응하는 데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좌익에게는 모든 기회를 외면했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을 구축하려는 모든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조각가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선택한 재료로 그것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는 그저 대리석 조각에 끌을 대고 무심히 다듬으며 최종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가 단순한 극우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든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국가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찾기 위해 국가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연구하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힘이나 능력이 없다면, 자신의 활동을 위한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 운동에는 좌절한 증오자나 종교적 몽상가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헌신적인 국가사회주의 혁명가들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익은 대부분 매우 불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불쌍한 집합체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질서를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그 체제에 매달리고 75년 전이나 1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혼란이 100년 전 체제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 그 시스템의 기반이 현재의 발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만큼 훌륭하고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대부분의 근원은 바로 그 기독교 사상에 있습니다. 그 평등주의 철학과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가르침은 우리 국민의 영혼을 앗아갔지만, 그들은 주변에서 목격하는 쇠퇴에 대한 방패막이로 계속해서 기독교 사상을 칭송합니다. 발전을 막으려는 그들의 모든 헛된 시도가 실패하면, 그들은 좌절하고 단순한 증오심으로 전락합니다. 진정한 비전도 이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조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오와 같은 혁명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했을 때, 기득권층은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노동계급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념으로 표현된 혁명적 사상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목격한 모든 필요하고 정당한 사회적 개선은 좌익의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고, 우익 보수파는 끊임없이 후퇴하면서, 불쌍하게도 자신들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존 체계를 전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화석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로 남아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하며, 낡은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철학적 통찰을 수용하는 새로운 자연 질서를 창조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이기적인 유물론, 기독교, 또는 다른 비자연적인 철학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은 오로지 자연법에 근거하여 판단될 수 있으며, 자연법에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국가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주의자들 역시 우익은 아닙니다. 국가사회주의와 우익의 유일한 공통점은 인종 문제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망에서. 우익은 백인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으며, 이는 아리아 인종을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룰 권리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 인종의 생명과 즉각적인 안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백인 인종을 우주의 자연 질서 전체의 일부로 여기며, 이를 보존하려는 우리의 바람은 자연의 불가사의한 지혜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다른 인류를 포함한 전체 자연 환경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바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인종은 지적 능력 면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백인의 힘"을 외치며, 우리 인종이 최소 2000년 동안 절대적인 힘을 누려왔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힘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익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기술 및 경제 확장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이미 대기와 수질 오염을 초래하여 세계의 광대한 지역을 모든 종이 살기에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대기의 오존층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미래 세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선에 노출될 것임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던 열대 우림이 산업 성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벌목되고, 사막에 관개를 하여 지하수위가 비옥한 지역의 수위가 낮아져 결국 사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리아인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아리아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천재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천재성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인간적 탐욕을 충족시키고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연법의 기준으로 볼 때, 서구의 산업화된 백인 국가들을 소위 제3세계의 원시 사회보다 훨씬 더 타락한 국가로 확실히 변질시킨 이 치명적인 추세는 흑인, 유대인, 그리고 보트 피플만 추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익의 맹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영적 부활이며, 이 부활의 토대를 정의하고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이것이 인종적 투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다른 인종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인종의 타락에 맞선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의 기반으로서 인종을 외면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타락을 극복하고 자연적 가치로 돌아갈 길을 찾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인종이 현 체제의 맥락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가장 극악한 형태의 반자연적 타락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백인의 힘"에 대한 주장은, 그것이 백인의 천재성에 잠재되어 있는 자연의 힘을 되살리고자 하는 소망을 의미할 때에만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은 삶의 원칙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다인종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종은 자연 질서의 초석 중 하나이므로 다른 모든 자연 원리와 마찬가지로 수호되어야 합니다.

물론 피부색이 하얀 것이 반드시 인간성의 특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백인종은 세상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물질주의적 소비 사회(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의 궁극적 목표)를 자연적, 정신적 가치로 대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백인종이 깨닫지 못한다면, 백인종은 멸망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구 전체를 파괴할 뿐입니다.

당연히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석기 시대 동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에 되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은 물질적 재화의 양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환멸에 빠진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더 나아가 지배 질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가사회주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국가사회주의, 오직 국가사회주의만이 오늘날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시위 운동이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장악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리보다 상품 판매에 더 능숙합니다. 어떤 마르크스주의 정부도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유물론적이고, 자연적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득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마르크스주의를 부추길 뿐입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 자체가 애초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닙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 종교적 집착, 악명 높은 과대망상, 그리고 대의에 대한 헌신의 부재(버려야 할 것을 지키려 끊임없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비롯됨)로 소수의 전통적인 우익 변두리 집단을 설득하려 애쓰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심으로 무한한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건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 질서를 보존하려면 오염 통제나 핵 에너지, 원자폭탄 폐기보다 더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인류를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인종 분리와 전반적인 영적 부흥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필요한 정보와 통찰력을 얻고 어리석은 마르크스주의 가르침의 독점적인 영향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며,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자존심을 높이고 개인적인 문제와 불안감을 자칭 제복과 터무니없는 계급과 직함 뒤에 숨기려는 환멸에 빠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사입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스톰트루퍼나 증오 선전에 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인상을 더욱 확고히 할 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인종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인종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문제들을 살펴보고, 핵무기, 환경 오염, 핵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위자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수십 년간의 적대적인 선전 때문입니다. 이 선전은 건전하고 지적인 사람들을 국가사회주의 사상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운동에서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라는 선전 이미지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이미지에 부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황색 언론의 끔찍한 "나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잔혹하고 피에 굶주린 짐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을 우리 대열에 받아들여 왔고,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조직들과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국가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만자(卍字)를 흔든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동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적들 앞에서 "더러운 실타래를 풀어서는" 안 되며, 모든 "내부 갈등"은 우리 안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자기 벽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린넨이 아니며, "내부 갈등"도 아닙니다. 이는 필수적인 청소 작업이며,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유대인이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통해 국가사회주의 철학의 근본 개념을 훼손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적이 대중에게 전달한 우리의 사상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충성심도 느낄 수 없으며

우정.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되지 않는 일들을 정확히 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치 독일의 만자(卍字)를 흔드는 우익 인사라면 거의 누구나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익에 가까워지리라고 기대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우익이라는 말을 거듭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는 적어도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한 번 거짓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역사적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을 부활시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이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은 하나의 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정 시대와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사회주의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되살리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큰 관심사였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실험이었습니다.

약 60년 전 히틀러가 독일을 재편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시작했을 때, 독일 전체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배 후,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은 모국과 단절되어 타국에서 소수 민족으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오직 자신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남은 것은 완전히…

비무장화되었고, 정복자들이 내건 터무니없는 배상금 요구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경제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방에서 온 소수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서서히 무너진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의 문화와 정치 전반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터무니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서방 국가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20년대 독일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족차를 팔고 더 싼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에서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ᛉ

그러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히틀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독일은 여전히 상당히 동질적인 국가였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 그리고 국가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공통된 신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권력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강해지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에게 민족과 인종을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규범이 반드시 국가사회주의 철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가사회주의 국가를 큰 어려움 없이 건설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었고, 따라서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 선전을 좀 더 세속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혁명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고, 일자리와 식량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그렇게 되면 권력을 얻어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 비전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즉각적인 필요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당시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유일한 혁명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히틀러와 똑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굶주린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거의 무엇이든 시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히틀러보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을 지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투쟁을 설명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운동을 군주제나 교회와 같은 과거의 강력한 우익 이념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철저히 좌익적이었고, 기득권층과 공산당에도 똑같이 반대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공산주의자들을 설득했을 때, 그것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독일 노동자에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독일 공산당 수장이었던 텔만보다 더 유능한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당시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부에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는 전직 군인들로 가득 찬 나라에서 유행했던 군사적 스타일을 채택했다. 이는 히틀러와 매우 유사한 스타일과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공산주의 살인 조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했다.

오늘날 히틀러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일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집단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히틀러의 선전 자료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을 번역하거나, 재인쇄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역사적 학습 자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모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히틀러는 1930년대 독일 대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대중을 사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수의 이상주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려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유형의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들, 즉 오염, 핵 위협, 다국적 자본주의의 저주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히틀러 시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50년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 운동은 시대착오적인 화석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 국가 사회주의는 좌익 운동이다

히틀러가 독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와 미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물론 국가사회주의 독일이 세계가 본 유일한 국가사회주의 실천의 사례이며, 그 짧은 12년이 우리 운동이 누렸던 유일한 영광과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 어려운 굴욕과 박해의 시기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사회주의가 한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음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이러한 존경과 찬사가 생산적인 영감이 되는 대신, 지나간 시대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히고, NSDAP의 상징, 제복, 상징, 계급, 헤어스타일, 심지어 30년대의 언어 스타일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으로 변질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재된 사상이 중요하며,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히틀러처럼 우리도 역사의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국가 사회주의가 오늘날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히틀러가 1933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은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 자체를 초월합니다. 히틀러는 이를 더 이른 시대와 장소에 적용했고, 우리는 이를 우리 시대와 장소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자연이 살아가고 창조하는 바로 그 원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아리아 인종, 혹은 인류 그 자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말입니다.

인간은 이 원칙을 버렸고, 우리의 임무는 인간이 처벌받지 않고 이 원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미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좌파가 소련과 얽매여 있는 것만큼 국가사회주의 독일과 얽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좌파 단체들의 조직 방식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조직은 인간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은 흔한 일입니다. 물론 일부 단체의 추종자들에게는 사실일 수 있지만, 진지한 마르크스주의 조직의 핵심은 질과 헌신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직됩니다. 회원들은 십일조를 자주 내야 하며, 매주 일정 기간 동안 이념 훈련과 실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에게 가해지는 요구는 우리가 회원들에게 감히 기대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질에 대한 증거이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완전히 터무니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로 여겨지는 입장을 취하거나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친구와 적 모두에게 나쁜 평판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을 설득하는 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능이 부족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적들이 무엇이 국가사회주의적 관점이고 무엇이 아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모든 좋은 대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맡겨두고, 어차피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토록 성공하고 발전해 온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문화와 지적 삶의 광대한 영역을 장악해 온 반면, 나치즘은 나토, 유럽 공동 시장, 핵무기, 자본주의, 무제한적인 "자유 기업" 등에 "예"라고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국가사회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행합시다.

이와 관련하여 슬픈 진실은 많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최악의 종류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익 반공 선전. 인류에 대한 주요 위협은 분명 모스크바, 베이징, 아바나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안타까운 상황, 마약 남용, 범죄, 음란물, 핵무장, 인종 통합, 환경 오염 등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현 정부 체제입니다. 공산주의자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리 정치인들과 주식 중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 아리아 민족이 스스로 이 악을 심화시켰습니다. 지구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것은 외국 정부가 아니라 현 체제이며, 이 체제가 없었다면 오늘날 소련이나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방이 소련에 필요한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산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서방 정부와 은행가들의 끊임없는 지원이 없다면 즉시 붕괴될 것입니다. 서방 정부와 은행가들은 이들 국가와의 무역과 자금 대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동유럽을 통제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주의 정권을 보호하여 서방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충분합니다. 흥미롭게도, 공산권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바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공산주의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득하려는 무기 생산으로 또 다른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전쟁으로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무엇이든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익이 그토록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및 금융 시스템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공산주의는 매우 불쾌한 일이겠지만, 세상의 종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유럽은 서구 어느 곳보다 인종적 순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들의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 대규모 제3세계 이민을 유치하지 못하고, 러시아인의 인종 의식이 지배적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미국 정치인들의 비전보다 아리아 인종의 생존에 더 나은 전망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인종적 원칙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이론과 실천이 매우 다릅니다. 서구가 제시하는 물질주의가 지금 당장 더 매력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유쾌한 삶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홍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서구에 건전한 정치 체제가 있다면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고, 굶주린 주민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서방을 장악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감히 국가사회주의와 만자(卍字)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쉽게 팔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 "진짜" 좌파로 위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우리의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이나 상징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바로 그 아이디어이고, 그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항상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나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나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를 시도했지만, 성공한 단체는 없습니다.

오직 어려운 방법만이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이 지구상의 생명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가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스스로를 국가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불쾌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내일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의 국가사회주의 전문가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학자, 법학자, 행정가, 생물학자 등 국가사회주의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권력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은 뜬금없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려면 철저한 교육을 받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몇몇 편협하고 패배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거리에서 패배하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국가사회주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실험이 완료될 수 없었고, 새로운 국가가 외부 세계의 압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경멸심만 가득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해야 했기에 충분한 국가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걱정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는 혁명적 승리를 거둘 수 없으니, 미래의 대중 운동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또한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할 아주 막연한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주의 법칙을 무시했기에 지구상에서 인류를 멸종시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전을 투쟁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대의를 위한 순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운동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띄게 실패했습니다. 이제 깨어나 우리 사상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첫걸음은 혁명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설픈 우익적 태도를 뒤로하고 우리가 좌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윙어들. 더 나아가, 우리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스스로에게 최악의 적이었고, 희생양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변화는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